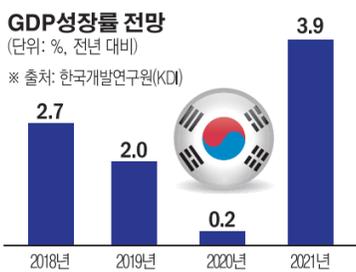


## KDI “올 성장률 0.2% 제로금리 수준 인하를”

민간소비·수출 큰 폭으로 위축  
올해 수출증가율 -15.9%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더 악화  
“양적완화 적극 추진해야” 주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 2.3%에서 0.2%로 2.1%포인트(P)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상반기부터 둔화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가을에 다시 대유행하는 등 최악의 경우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3면

2018년 2.7, 2019년 2.0, 2020년 0.2, 2021년 3.9

-15.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인 2019년 -10.3%보다 더 악화하고 수출금액도 5000억 달러를 하회(4725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2018년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KDI는 이날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올해 0.2% 성장하는데 그치고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KDI 전망대로 0.2% 성장에 그치면 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실업률은 3.9%로 전년(3.8%)과 비슷하지만, 취업자 수는 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 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는 -2%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하면서 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봤다. 정규월 KDI 경제전망실장은 “3월까지 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4월부터 서서히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세입정정을 위한 3차 추경은 필요하지만, 복지정책처럼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국제매입을 비롯한 양적완화를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과 작년 기저효과 등에 코로나19로 0.9% 성장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개선돼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정 실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올해 0.2%, 내년 3.9%를 합치면 4.1%인데 그러면 2년간 연평균 2% 정도밖에 성장을 못 하는 것”이라며 “우리 잠재성장률을 2.4% 정도로 추정한다면 내년에도 그 경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하반기부터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증가율은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CSR 국제콘퍼런스’ 온라인서 또 보세요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가 20일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과 기준’을 주제로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사전 녹화됐다. 이준우(왼쪽부터)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이영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투데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재시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신태현 기자 holjjak@

## ‘전월세 계약 신고제’ 내년 말 시행

### 국토부, 주거종합계획 발표

매매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장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임대차 계약 현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

### 수도권 상한제 최장 5년 거주 의무

### 재개발 공공주택 공급률 확대 올 공공임대 14만1000호 공급

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최장 5년까지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로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

면 수도권 기준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를 공급하고 작년보다 8.7% 많은 113만 가구에 주거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7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29조 6000억 원 등 31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거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도록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 올 법인세 ‘8兆 핑크’ 예상

한경연 “지난해보다 21.7% 줄어... 6년 만에 감소 전환”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수 결손액이 7조9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과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는 56조 5000억 원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경연연구원은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올해 연간 법인세수를 추측한 결과 예상 수입 규모는 56조 5000억 원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세수 오차율이 커지는 만큼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수는 ‘세수결손’과 ‘초과세수’를 반복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높아졌다 2016년부터는 ±10% 내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72조2000억 원보다 21.7%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예산액이 64조 4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규모는 7조9000억 원에 달한다. 오차율도 -12.3%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해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한경연 관계자는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김비라 기자 kimstar1215@

## LG, TV생산라인 인니로 이전

### 아시아 거점 생산지 포석... 구조조정 없이 구미인력 전원 재배치

LG전자가 TV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미사업장의 TV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 LG전자는 생산지 효율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TV 공장을 아시아 시장의 거점 생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미사업장은 롤러블(Rollable) 등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담당한다.

품질검사, 포장 등 전 공정에 자동화 설비도 대거 확충해 생산능력을 50% 늘린다.

▶관련기사 10면

LG전자는 구미사업장의 TV·사이니지 생산라인 6개 가운데 2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글로벌 TV 생산의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인 구미사업장을 필두로 권역별 거점 생산 체제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는 짜비퐁(인도네시아), 유럽은 므와바(폴란드), 북미는 레이노사-멕시코칼리(멕시코)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각 지역의 TV 생산 거점 기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르면 연내 생산라인 이전을 마무리하고, 인도네시아 짜비퐁(Cibitung) 공장의 TV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TV 생산지를 지원하는 마더 팩토리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한다. 구미사업장 TV·사이니지 생산라인은 기존 6개에서 4개 라인으로 조절하고 롤러블, 월페이퍼(Wallpaper) 등 고도화된 생산 기술이 필요한 최상위 프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수마트라섬, 인도네시아, 짜비퐁, 자카르타, 짜비퐁, 자바섬, 발리섬

미엄 TV와 의료용 모니터를 전담 생산한다. 신제품 양산성 검증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수행한다.

LG전자는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사무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구미사업장 인력을 전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TV 관련 직원 5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은 같은 사업장 내 TV 생산라인과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지속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교문 발열체크·칸막이 급식실... “설레지만 불안해요”

## 서울 경북고 가보니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 설레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20일 전국 45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정상 등교(3월 2일)가 다섯 차례 연기된 지 80일 만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경북고등학교 교문 앞은 발열 체크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걷던 학생들은 교문 근처에 도착하자 발열 체크를 위해 1m 간격으로 줄을 섰다. 정문에는 방역 작업을 추가로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이 오가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은 만큼 각국의 외신들도 모여들었다.

‘시뮬레이션’으로 넓게 띄운 책상,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과 교내 선별 진료소 격인 일시적 관찰실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김영준(가명·19) 군은 “거의 집에만 있

던 등교 연기 80일 만에 대면수업 넓게 배치한 책상·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에 달라진 낯선 교육 환경 “마음 편히 수능 준비했으면...”

발열체크 동참한 조희연 교육감 “학업·방역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어서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학교에 나오니까 좋다”며 “사실 대입 준비로 부담도 되고 부모님도 걱정했지만 이제 학교에서 준비를 차분히 하려 한다”고 미소 지었다.

일부 학생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탓에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을 내비쳤다.

마스크를 쓰며 교문에서 발열 체크를 기다리고 있던 이경모(가명·19) 군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부한다 생각하니 좋긴 한데 솔직히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걱정도 된다”면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마음 편히 수능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송파구 창덕여고에서 학교측 관계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경북고 3학년 256명 학생 중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은 1명이다. 학교 측은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 이경를 경북고 교장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담임교사 등이 순번을 정해 방역 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급식 시간에도 6명 이상의 교사들이 거리두기 등 수칙을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경북고 정문에서 고3 학생들을 맞이하며 직접 체온계를 들고 발열 체크에 동참했다.

조 교육감은 “학업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아야 하는 긴장된 국면으로 들어섰다”며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조화시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긴장 국면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3 등교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교육당국에 비상

이 걸렸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부터 32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었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정부세종청사 5층에 ‘등교수업 지원 비상상황실’을 열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와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실시간 대응할 방침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전국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처음 시작된 20일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천과 안성 지역에서만 총 75개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귀가하거나 등교가 중지됐다.

방역당국은 등교 개학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하고, 지역감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등 5개 구에서 관내 고등학교 66곳의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확진된 고3 학생 2명은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다녀간 뒤

## 확진자 발생에... 인천·안성 75개교 ‘다시 집으로’

### 정은경 본부장 “원격수업 전환 등 학교별 위험도 차등 대응해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로부터 전파된 수강생들이 다녀간 장소다. 인천시는 방역당국과 상의해 재등교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6일부터 19일 사이 미추홀구에 있는 비전프라자, 세움학원, 연수구 서울 휘트니스 인천점을 방문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도 앞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안성 지역 9개 고등학교의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해당 학교는 안성고·안성여고·일죽고·죽산고·경기창조고·안법고·두원공업고·가온고·한겨레고다. 다만 이들 학교는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등교 중지 사태가 잇따르면서 등교 개학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학교의 온라

인·원격 수업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감염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며 “학교별로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다고 보면 좀 더 개학을 늦춰서 더 안전한 시기에 개학하면 좋겠지만 가을·겨울철에도 위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생활과 방역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방역과 학생·교직원들의 철저한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개학으로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된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방문을 금지하고, 교직원들은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교실 입실 전에 발열검사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호자, 혹은 119를 통해 선별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 8명, 지역발생 24명 등 32명으로 집계됐다. 9일 만에 다시 30명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지역 발생 24명은 이태원 클럽 관련 18명, 삼성서울병원 3명이었고, 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손현경 기자 son89@

##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걷던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 “정부지출로 버티다간 재정위기… 증세 논의 시작해야”

## “0.2% 성장” 이례적 낙관론 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2%)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은 “코로나19 위기 발생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지출이 경제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성장세는 둔화하면서 경제 역동성이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KDI는 “민간소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하면서 거주자의 국내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으나,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하면서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글로벌 수요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로 부진이 점차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 하반기에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상품 수출은 1.7%, 총수출은 3.4% 감소하며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제로'가 예상된

민간부문 성장 기여도 둔화하는데 정부 추경 확대효과로 0.5%p 상승 지출에 준하는 재정수입 확대 필요 증장기적 증세 등 대책 병행 조언

다. 경상수지는 수출물량 축소에도 교역조건 개선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흑자 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세에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이 겹쳐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 KDI가 '플러스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재정지출 확대다. 정부는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도 준비 중이다. KDI는 1·2차 추경의 성장률 기여 효과를 0.5%p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단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내비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해서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증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망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후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나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	중기계획	중기계획	
총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481.8 (1.2)	481.6 (1.2)	482.2 (1.3)	504.4 (4.7)	529.1 (4.9)	554.3 (4.8)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512.3 (9.1)	523.1 (11.4)	531.1 (13.1)	546.8 (6.5)	575.3 (5.2)	604.0 (5.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71.5 [-3.5]	-82.0 [-4.1]	-89.4 [-4.5]	-83.0 [-4.0]	-85.7 [-4.0]	-90.3 [-4.0]
국가채무 [GDP 대비]	805.2 [39.8]	815.5 [41.2]	819.0 [41.4]	898.8 [43.6]	981.8 [45.8]	1072.7 [48.0]

\* 출처: 기획재정부  
정규철(오른쪽) KDI 경제전망실장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과 현안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가 올해 3.0% 역성장한 후,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는 45% 하락한 배럴당 35달러 내외, 실질실효율률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4% 절하되는 상황이 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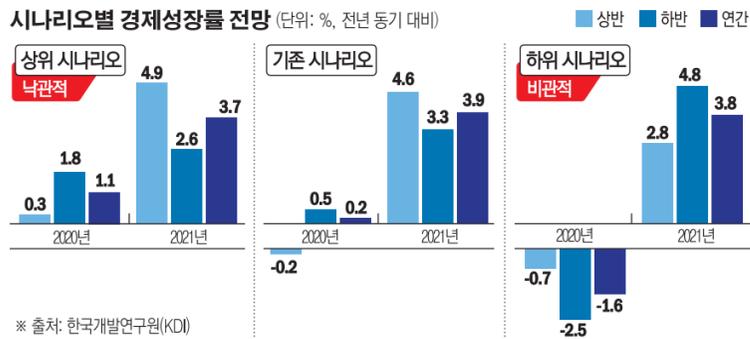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해소와 세계경제 성장을 회복에 힘입어 3.9%로 오를 전망이지만, 이를 성장경로 회복으로 보긴 어렵다. 정 실장은 “올해 성

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올해 0.2%와 내년 3.9%를 합하면 4.1%이니까 연평균으로 2% 정도밖에 성장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2년 동안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대략 2.4%로 추정한다면 내년도 경로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의 이번 전망치는 민간연구기관 중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0.3%)와 유사한 수준이다. IMF(-

1.2%), 골드만삭스(-0.7%), 금융연구원(-0.5%)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지출 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면 그 부채를 단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지금 증세를 해야 하는데에 대해서 기업 경영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큰 방향에서 증세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코로나 백신개발 땀 1.1% vs 연말까지 지속시 -1.6% 시나리오 따라 성장률 '2.7%p差'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때와 다르게 변동성이 크다. 가장 큰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결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낮게는 -1.6%까지 내리고, 높게는 1.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경로 전망' 보고서를 첨부했다.

코로나19 보건위기는 공급과 수요, 금융에 모두 부정적 충격을 줘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공급 측면에선 감염·격리·돌봄과 사업장 폐쇄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상품은 글로벌 가치사슬 발달로 한 부분의 공급 타격이 전후방 산업의 생산·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요에선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대외적으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수출까지 위축되는 상황이다. 공급·수요 충격은 가계소득 감소로, 다시 수요 감소로 악순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위기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으나,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지면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

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KDI는 코로나19 지속기간에 따라 한국의 거시경제를 세 경로로 분석했다.

먼저 국내 경제활동이 5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하반기 대부분 정상화하고, 해외의 경제활동도 하반기에 완만하게 회복된다면 올해에는 플러스 성장(0.2%), 내년 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해 국내에선 5월부터, 해외에선 3분기부터 경제활동이 가시적으로 회복되고,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한다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서비스 소비 위축에 제한돼 올해 성장률이 1.1%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외 모두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일부 취약 국가·산업에서 유동성 경색이 발생해 글로벌 소비·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되고, 공급망 교란에 따른 생산 차질과 각국의 인적이동 제한조치가 이어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6%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단 코로나19 종식이 늦어질수록 내년 성장률은 높아진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기보다는,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통신 혜택과 카드 혜택의 만남!

## KB국민 Liiv M카드

LiivM 통신요금 자동이체하면 최대 1만 5천원 청구할인



### LiivM 통신료 자동이체 할인 서비스

전월 이용 실적	1구간(50만원 이상)	2구간(100만원 이상)
할인 금액	10,000원	15,000원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용+3%p, 최고 연 24% \*연체발생 시점에 정상이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가계발생시점의 동일할부 계약기간의 유효하지 할부수수료를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2만원 \*전월 실적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할인 및 개별 서비스 한도가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전월 이용실적,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0-C2b-0211호 (2020.03.15~2021.03.12)



(사회적 가치)

# SV 평가 잣대가 '기업의 지속성' 성패 가른다

'SV 창출'은 피할 수 없는 흐름  
다보스서 '제2매니페스토' 선언

"코로나로 판단·투자활동 변화  
사회적가치 측정 못하면 뒤쳐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Small change can make a Big difference.)"

경제적 가치(EV)에 치중됐던 기업의 중심이 사회적 가치(SV)로 옮겨가고 있고, 그 균형을 잡는 기업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가 SV로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원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회적 가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예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주(主)고 사회적 가치는 종(從)적인 자극에 불과했다"면서 "조만간 사회적 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기업이 오래가지 못하는 쪽으로 포커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에서 박성훈(왼쪽부터) 사회적가치연구원 솔루션랩 실장, 이영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김상철 이투데이미디어 대표, 이준우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가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중심인 시기부터 그 개념이 등장했으나 최근 들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759년 애덤 스미스의 경제철학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의 연민과 공감을 말하며 출발한 사회적 가치는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베버리지 리포트 등

을 거쳐 민간과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그 개념을 정립하고 중요도를 높여갔다.

사회적 가치는 올 초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방향성이 더 확고해졌다. 50주년을 맞은 다보스 포럼이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를 주제로 '제2의 매니페스토'를 선언한 것이다. 나 원장은 "다보스 포럼이 1973년 선

한 매니페스토를 47년 만에 갱신했다"며 "기업은 경제적인 단체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단순히 구호로 외치던 사회적 가치를 제품을 통해 창출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글로벌 비영리재단 팔리와 함께 버려진 페트(PET)병으로 신발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담은 리닝화'를 팔았으며,

맥주 회사 사브밀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현지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토착 식물인 '카사바'로 만든 맥주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나 원장은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가치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나 원장은 영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3S(Sinking·Swimming·Surfing) 유형을 소개하며 이 중 서핑(Surfing)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판단, 투자 활동 등은 많이 바뀔 것"이라며 "이 중 심연 당연히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변화 속 서핑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이며 그 핵심은 사회적 가치의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장은 사회적 가치의 세계 확장에 따라 중요해지는 것이 '측정(Measuremen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V 창출은 회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건 측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측정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측정되는 사회적 가치와 측정되지 않는 시기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패널 토론

### “사회적 가치 측정 고도화해 민관 K-브랜드로 육성해야”

정량·정성적 평가 균형 맞춰

부가가치 반영·지수화 등 제언

경영 장애물 아니라 소명으로  
전 세계 표준 되도록 노력해야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SV) 측정 기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회적 가치 측정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K-사회적가치 측정'이 국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측정 기준을 정성적·정량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준우 한밭대학교 교수(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심사위원)를 좌장으로 진행된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이영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며 K-브랜드가 주목 받았듯이 한국의 사회적 가치 평가 부분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 처장을 비롯해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이 처장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반복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 노력을 소개하며 "정량적 측정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이지만, 사회적 가치에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간, 업종·규모별 비교 가능성도 작아 세부 항목에 대한 지수화 평가, 상대적인 점수 평가도 향상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 연구위원 역시 "기업은 모든 걸 측정하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가치 역시 질적인 산출 부문을 고민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작업의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방법론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긴 호흡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전환하면서 내외부에서 소통하기는 좋은 상황이지만 정량적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자원 투입 시 지역 사회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법을 만들어 의사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많은 사회적 가치 지표의 홍수에 매몰되지 않고 핵심 지표를 정해 집중해야 하며 △사회의 관점에서 회사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측정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를 기본 역량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삼성전자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대응한 화진산업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집단과 단체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무시할 순 없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의) 소명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 결정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에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모든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야 하는 허들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나름의 목표와 기준을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 CSR 사례 발표

### “기업시민, 모든 기업 지향해야 할 경영가치”

양원준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기업의 역할과 목적이 변했을 뿐 아니라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양원준(사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이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에서 '모든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주제의 사례 발표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CEO 180여 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기업 목적"이라는 의미있는 선언을 했다.

이에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변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포춘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1955년 '가장



큰 기업', 1983년부터 '존경받는 기업', 2015년부터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양적 성장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판단 기준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양 실장은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기업들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포스코의 기업시민 선포의 이유를 대변했다.

포스코는 2018년 7월 국내 최초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선언

했다. 그는 "그동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알리고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는 '기업시민현장'을 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그룹을 신설한 포스코는 기업시민 현장과의 연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기업시민 가치 측정 방법을 개발 중인 포스코는 향후 정량적 측정 성과 및 확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기업시민 가치는 포스코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기업 경영의 모델로 자리잡고, 사회 변화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SK, 인센티브 줘...1600억 사회성과 달성”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

"사회적 가치로도 돈을 벌 수 있다."

박성훈(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에서 올바른 기업의 CSR 가치 측정 방법의 하나로 SK의 '사회성과 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PC)'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SPC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비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SK 최태원 회장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SPC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 고민이 SPC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SPC의 가장 큰 특징은 포지티브(Positive) 정책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탄소시장의 경우 네거티브(negative)한 인센티브 시장으로, 탄소배출



량을 정해 놓고 이 배출량을 초과하면 거래권을 사야 한다. 경기가 둔화되면 공장 가동률이 저하로 탄소배출권 거래도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환경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 SPC는 잘한 만큼 더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것으로 경기둔화와 상관없이 환경 등 사회적 가치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SPC의 두 가지 축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금전적 인센티브'다. 특히, SPC는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사회성과는 △사회서비스 성과 △고용 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환경 성과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A가 1년간 취약계층 500명에게 시장가격 70만 원인 간병 서비스를 50만 원에 제공했을 경우, (70만 원-50만 원)×500명인 1억 원이 사회 성과로 인정된다. 박 실장은 "SPC는 매년 참여 기업을 선발해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사회 성과를 측정해 보상하고 있다"며 "성과 측정을 연습하고 측정 지표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웹페이지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SPC는 사회 성과 대비 약 25%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약 200곳 기업이 1600억 원 규모의 사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저신용 회사채 사들여 '코로나 부도' 막는다

##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는 우선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다. 3월 발표한 '100조 원+알파(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효과로 4월 중순부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자금시장의 신용 경계감이 잔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SPV는 한국산업은행(산은) 출자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10%),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 원(80%) 등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산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한은 8조 대출+산은 2조' 10조 규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6개월 운영 뒤 20조로 확대 검토...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공공부문 '55만 개+α' 직접일자리 창출에 3조5400억 재정 투입

5000억 원, 내년도 예산 5000억 원 등 1조 원을 출자해 산은 출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후순위 대출자금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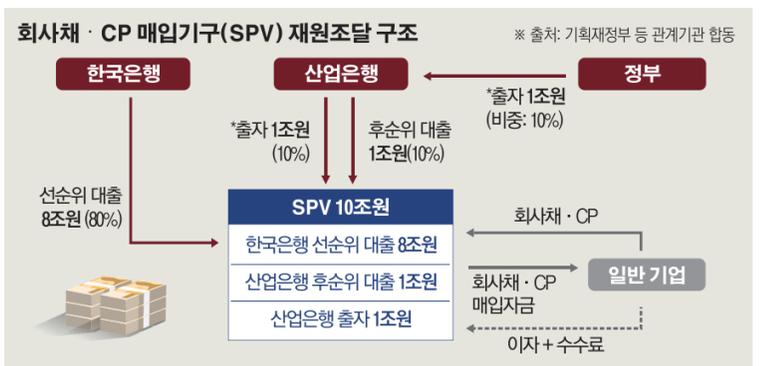
매입 대상은 만기가 3년 이내인 AA~BB등급 회사채와 A1~A3 등급 CP·단기 사채다. 정부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계획이다. BB등급 매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SPV에 고용유지 조건은 부과되지 않지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

며 "경영개선 노력이라 하면 기업의 자금 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PV를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재판단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총 2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공공부문 '55만 개+알파(α) 직접일자리 창출에는 3조54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공공부문에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1조 원)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30만 개(1조5000억 원) △정보기술(IT) 분야 청년·민간일자리 5만 개(5000억 원)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24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직자 채용 지원 5만 개(3000억 원) 등 총 55만 개의 재정일 자리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콘텐츠 구축(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3만6000명)로 구분된다. 희망일자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수주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IT 분야에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청년 일 경험 일자리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이 만드는 단기 일자리로, 관광·호텔·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공급된다.

실직자 채용 지원은 채용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시기에 이직해 일정 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노사정 대표자 회의**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김용기(왼쪽부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신태현 기자 holjjak@

## 1분기 가계빚 1611조 '역대 최대'

소비 부진에 카드·할부금융 '뚝'  
집 매매·전세 늘어 주담대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소비가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와 할부금융 등을 이용한 가계의 판매신용 규모가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계빚 증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분기 연속 확대됐다.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증가한 탓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여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1~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조3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0.7%(11조1000억 원) 늘어 직전 분기 증가세(1.8%)를 밑돈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서는 4.6%(71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작년 3분기(3.9%) 이후 2분기 연속 증가세가 확대됐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1521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1%(17조2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8%(15조3000억 원) 늘어난 858조2000억 원을, 기타대출은 0.3%(1조9000억 원) 증가한 66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판매신용은 6.4%(6조1000억 원) 급감

한 89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은 6.4%(6조 원) 줄어든 88조8000억 원을, 백화점과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는 4.3%(400억 원) 감소한 8000억 원을 보였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가 증가하면서 주담대 증가 규모가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늘었다. 반면, 판매신용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계절적 요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카드 사용액 감소 등 소비 부진이 겹친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상황은 여전하다. 실제, 2019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1%, 작년 4분기 기준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추정치는 1.3%에 그치고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업금융

QV 포트폴리오의  
차별화된 위험관리로

## 당신의 소중한 자산에 안전벨트를 채우다

자본시장은 언제라도 자산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NH크리에이터 어카운트는 QV포트폴리오를 통한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로 위험 관리와 수익률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NH크리에이터 어카운트는

- Risk Budgeting부터 지속적인 리밸런싱까지, NH투자증권 전문가 그룹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함께 합니다.
- 고객의 니즈 파악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모델포트폴리오 운용까지, 어떤 금융환경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자산관리입니다.
- 전문가의 넓은 시야, 시장에 대한 깊은 분석의 합리적인 운용 시스템, 확장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한 차원 진화된 투자 플랫폼입니다.

※ 본 투자 일임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위험성, 손익구조,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분기단위 후취합니다. [일반형]후취 연 2.0% [성과형] 후취 연 1.2%+성과보수 \*성과보수는 개별협의 ※ 계좌별로 운용되므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펀입자산의 교체가 있을 경우, 펀입 중인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44호(2020-04-14~2021-04-13)

투자, 문화가 되다

#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인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자동 폐기 예정인 기업 규제 강화 법안은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가 커지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속도에 맞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1999년 도입된 공인

## 전자서명 민간 위주로 개편

n번방 방지법·과거사법 통과  
공정거래법·상법 등 재추진  
'기업 옥죄기' 논란 거셀 듯

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와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의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법 처리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재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무산됐지만, 177석의 여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져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기업 옥죄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재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자사주를 늘려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유동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 프랜차이즈출점 규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과잉'·'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리기 위한 정부의 뉴딜정책 취지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국회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김상희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고이만 기자 photoeran@

##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3수 끝에 국회 수장... 부의장 김상희·정진석 유력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의장에는 현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4선)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5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자리에 박 의원을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애초 김진표 의원(5선)이 박 의원과 경쟁구도를 형성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양보 의사를 밝혔다. 경선이 자칫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김 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세 번째 도전 끝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자리를 예약하게 됐다. 박 의원은 당내 최다선이자 충청권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 기사를 거쳐 김대중 정부였던 1998년 국회의원회 수석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에

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2000년 16대 국회부터 내리 6선을 지냈다. 당내에서는 '구민주계' 출신이지만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평가와 신망을 두루 받고 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는 4선 김상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현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의원 상당수가 '현정사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부의장 경선 출마 의지를 보였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변재일 의원도 "여성 국회의장단이라는 대의에 공감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는 5선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되던 서병수 당선인은 13일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같은 5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지만 주 의원은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조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폐기물 대란 우려... 조명래 장관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SOC 건설시 재생원료 이용  
그린뉴딜, 토목공사와 달라



고 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에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60~70%는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됐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이후 수출량이 40%대로 떨어졌다"면서 "유가 하락으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더 낮아지는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적체가 심화된 폐플라스틱부터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수요처를 늘릴 계획이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영향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내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재

생원료 사용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환경분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한 자재 사용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회수제도(EPR) 분담금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의 품질, 재활용 용도에 따라 선별·재활용업체에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향 제시가 어렵지만 과거 대형 토목 공사와는 다르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과거 성장시대 같은 토건사업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린뉴딜도 단기적으로는 같은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국민연금 해외투자 5년간 50%→55% 확대

목표수익률은 5.2% 제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2025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고려해 5.2%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5.3%에서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5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0% 내외, 채권 35%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주식, 국내채권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비중은 2025년 55%(주식 35%, 채권 10%, 대체 1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0~2024년 중기자산배분안에서는 이 비중을 5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었다.

국민연금의 위험자산(주식, 대체) 비중도 2025년 6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혜 기자 winjh@

## 대기오염 주범 대형화물차, 수소차로 교체

정부, 현대차 등과 MOU

도로 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대형 화물차를 수소차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정부는 주요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수소 화물차를 시범 도입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충북 옥천의 CJ물류터미널에서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 1대당 연간 85.98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이는 자동차 1대 평균량인 2.12kg의 40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형화물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4.2%에 달한다. 2016년 기준 전체 차량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4만6374톤이었고, 이 중 대형 화물차의 초미세먼지량은 25%인 1만1123톤이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하지만 아직 이 같은 화물차를 대체할 차종이 없어 대기오염 저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수소 화물차를 실제 운송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로 군포-옥천 구간과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는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나올 화물 수소차는 현재 수출 중인 차량에 비해 이동거리(380km→500km 이상)와 수소 충전량(32.9kg→45kg), 충전압력(350bar→700bar) 등을 모두 개선해 출시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서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 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 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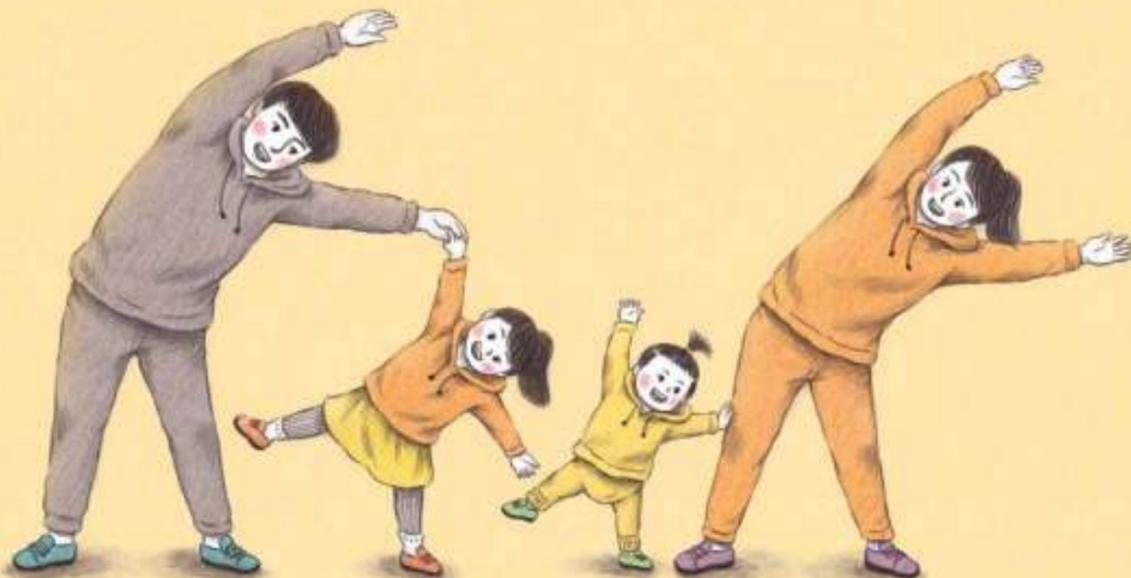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건강한 Life is Good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담는 그릇,  
매일 입는 옷까지

건강한 홈 Life를 위해  
LG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제 발등 짚은 日... 韓 ‘脫일본 가속화’에 소재업계 타격

韓, 불화수소 등 자체조달로 전환  
“한 번 대체되면 규제 풀려도 안써”  
日 소재업체들, 출하량 30% 감소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제 발등을 짚은 적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탈(脫)일본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그동안 한국과 거래해온 일본 소재업체들이 되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20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나 LCD 패널 생산에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 등을 자체 조달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일본 소재업체들의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 세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70~90%에 달했던 만큼 파장은 컸다.

이후 세계 최대 LCD 패널 제조업체인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1월경부터 패널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던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하고, 삼성전자가 국산 재료를 사용하거나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당혹케 했다.

그동안 LG디스플레이는 일본 스텔라케미카가 만든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 솔브레인이 100배로 희석한 제품을 써왔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관련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희석하기 때문에 굳이 일본에서의 정밀한

생성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솔브레인이 자체·가공한 제품을 채택, 패널 생산 라인에 도입했다.

이 여파는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11일 발표된 스텔라케미카의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텔라케미카는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여파로 반도체 액정용 불화수소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력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줄었다.

불화수소 분야에서 스텔라케미카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모리타화학공업은 지난 1월 수출을 재개한 후에도 한국으로의 수출이 수출 규제 이전에 비해 30% 감소했다고 한다.

그동안 전 세계 LCD 패널 및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의 첨단 소재를 사용해온 건 품질이 좋은 데다 가격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패널이나 반도체 제조는 100개 이상의 섬세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재료를 변경하면 불량률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이런 관행도 다 틀어졌다는 지적이다.

LCD 패널보다 더 많은 양의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반도체 생산에서도 공급처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제 합리성을 생각하면 일본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전환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작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해도 다시 일본제를 쓰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일국양제 거부” 차이잉원, 집권 2기 비장한 출발  
차이잉원(가운데) 대만 총통이 20일 영빈관 격인 타이베이빈관에서 집권 2기 취임식 무대로 향하고 있다. 1월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은 이날 취임사에서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을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양측이 장기적으로 공존할 길을 찾기 위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대용한 대화를 하자”고 호소했다. 차이 총통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61%로 2016년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타이베이/AP연합뉴스

〈증강현실〉

## “AR로 립스틱 구매”... ‘페이스북 숍스’ 오픈

SNS로 소통·결제·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전자상거래 강자 ‘아마존·이베이’ 위협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아마존닷컴이 주도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가상 쇼핑몰 ‘페이스북 숍스(Facebook Shop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숍스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하나로 쇼핑과 결제, 배송 추적까지 모든 쇼핑 과정을 일원화하는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쇄에 내몰린 소규모 유통업체와 재택근로 중인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전 세계에서 약 26억 명의 이용자를 거느린 페이스북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에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지각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페이스북 숍스에서 기업들은 ‘페이스북 패밀리’, 이른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 가상 쇼핑몰을 무료로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고 사용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쇼핑과 결제, 배송 추적까지 할 수 있다. 또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선글라스와 립스틱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페이스북 숍스 서비스 개시를 앞당기는 자극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 위기가 아니라 접이 분명해졌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폐점 위기에 내몰리면서 수백만 명이 실직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최악의 경제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2개월간 페이스북 숍스 팀과 협력해 서비스 개시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페이스북 숍스가 활성화하면 회사 광고 사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광고주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 그들의 활발한 영업이 페이스북 수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의 전자상거래 진출로 아마존, 이베이 등 기존 온라인 유통 강자들이 버거운 상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아마존이나 이베이 홈페이지를 열고 결제창으로 옮겨가는 번거로운 대신 페이스북 숍스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즐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숍스는 앞으로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우버이츠와 그럽허브 같은 음식배달 앱 업체들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기자 0jung2@

## 63년 만에 사명 바꾸는 日 소니 내년부터 ‘소니그룹’으로 새출발

금융중심 사업 안정적 다각화

일본 전자업계의 간판 소니(사진)가 사명 ‘소니그룹’으로 변경한다. 1958년도 교통산업에서 지금의 소니로 변경한 지 약 63년 만이다. 그동안은 전자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앞으로는 시류에 맞춰 전자는 물론 금융과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등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조직에 남아 있었다”고 지적하며 본사는 그룹 차원의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니는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부문과 소비자와의 접점인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연결하는 영역으로 금융 사업을 키워 수익원의 다각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금융 사업이 있다. 금융 사업은 소니의 연 매출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고,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FH를 완전 자회사화함으로써 핀테크 분야와 그룹 실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SFH의 수익 대부분을 창출하는 생명보험은 라이프 플래너(영업 담당자)가 가진 데이터와 본사의 AI 노하우를 결합하면 컨설팅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 코로나 공포 찾아들었나... 항공 회복 조심

봉쇄조치 완화되며 수요 개선... 美 항공사 예약·탑승률 모두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항공업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항공 수요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의 예약 건수와 탑승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우스웨스트항공은 3월 이후 처음으로 예약 건수가 취소 건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6월 예약도 소폭 개선됐다. 이번 달 탑승률은 평균 25~30%로 전월 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전 전망치 10%도 훨씬 웃돌았다.

이에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이번 달 매출 전망을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예전 전망치를 수정해 90% 감

소로 낮췄다. 다음 달 매출은 80~8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나이티드항공도 취소 건수가 줄어든 고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이 완만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5월과 6월 항공기 운항률이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7월에는 75% 감소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델타항공은 6월과 7월 국내 관광 예약 증가로 전망치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내달엔 국제선 운항도 늘릴 예정이다. 뉴욕-암스테르담, 뉴욕-파리, 애틀랜타-파리, 디트로이트-상하이, 시애틀-도쿄 등 100회 운항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항공 수요가 여전히 적지만 4월에 수요가 아예 자취를 감췄던 데 비하면 회복 조짐의 신호로 여겨진다고



미국 워싱턴 국제공항 주차장에 여객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교통안전국(TSA)에 따르면 5월 들어 18일간 341만9717명이 미국을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수준이지만 전월 대비 95% 상승한 수치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항공업계가 미국 정부 지원금 250억 달러(약 30조 7000억 원)를 이미 받은 상태여서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사용할 실탄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데이터 거래소 참여’ 신한처럼... 금융위 ‘무언의 압박’

데이터 생태계 구축 협의회 개최  
빅데이터 사업 구체화 주문 의도  
특별 발표자로 신한銀 담당자 지목  
28일부터 업권별 릴레이 회의  
거래소 활성화 구체적 방안 도출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을 앞세워 데이터 경제를 통한 금융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금융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출범 초반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자, 신한금융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라며 금융회사와 통신, 핀테크 사업자를 한자리에 모은다. 이후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 업권별로 릴레이 협의회를 열어 실제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데이터 유통 생

태계 구축 협의회’를 진행한다.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관련 과제 발굴을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상거래 기업 빅데이터 본부장급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 신한은행 빅데이터 담당자를 특별 발표자로 지목했다. 신한은행의 사례를 직접 보고 금융데이터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암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회의 중간

신한은행은 데이터 거래소 참여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 데이터 거래소 참여 계획과 데이터 유통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도 듣는다.

이날 참석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 5곳과 금융투자사 2곳(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보험사 3곳(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생명), 카

드사 6곳(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이 참석한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11번가와 같은 IT업체들도 참여해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 상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금융위는 이달 28일부터 6개 카드사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은행, 증권보험 등 금융 업권별로 릴레이 회의를 개최한다. 내달 18일까지 모두 7번의 회의가 진행되고 참여사들은 구체적인 금융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협의를 통해 금융사들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신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데이터 센터를 은행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출범 초반이지만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공식 출범 이후 20일까지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는 열흘 동안

58건에 그쳤다. 이 기간 중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은 201건에 불과했다.

현재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여 업체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 KB국민카드, 우리은행, 삼성증권, IBK기업은행, 비씨카드 등 46곳이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 4개, 신한카드 65개로 69개의 데이터 상품을 등록한 신한이 주도하고 있다. 18일 KB국민카드가 20건의 상품을 등록했고 나머지 대형 금융회사들은 단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데이터 거래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다”며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해야 효과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데 현재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올라온 자료는 금융에만 한정적이어서 효과적인 사업을 구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서지연 기자 sjy@

<기업 PR>



## “앱 통해 엄마·아이 건강 관리” 동양생명 ‘엔젤맘스케어’ 인기

동양생명이 스마트폰 앱으로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해 엄마와 아이의 건강 관리를 돕는 ‘엔젤맘스케어’ 서비스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엔젤맘스케어는 ‘(무)수호천사꿈나무 자녀사랑보험’과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 가입자 전용 서비스로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혜택을 제공한다.

앱을 통해 산모는 임신 주수에 따른 태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체중 관리와 걷기 목표 설정 및 분석 기능을 탑재하고 상황별 트레이닝 영상을 제공해 산모가 출산 전후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후에는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예방접종 일정 △키·몸무게 등 성장관리 △체온 및 해열제 복용 기록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성장과 발육에 도움이 되는 성장 마사지, 성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성향 검사, 심리케어 상담, 성조숙증 위험도 상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양생명 어린이보험 가입시 ‘엔젤맘스케어’에 동의하면 계약 성립 이후 설치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 서비스 신청은 어린이보험 가입 시에만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보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형평성이나, 원칙이나 쌍용차 ‘기안기금’ 수혜 촉각

### 금융 인사이트

수년간 축적된 유동성 위기  
코로나發 부실 인정 어려워

해석차에 달라지는 지원 명분  
두산중 사례 형평성 논란 우려



코로나19 위기 기업에 지원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이 6월 중순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수혜 대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독자적으로 생존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쌍용자동차가 이번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쌍용차는 대주주 마힌드라가 애초 약속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현재 쌍용차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3900억 원에 이르렀고, 이 중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원은 올해 7월이 만기다.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선 회계 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과 별도로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안기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쌍용차는 자사가 고용한 인원만 5000여 명으로 국내 고용과 지역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기안기금의 지원대상 요건인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등을 충족한다.

다만 문제는 쌍용차를 기안기금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가 기안기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애초에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대상에서 제외기로 했다. 대신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다. 쌍용차

의 부실은 수년간 축적된 것으로, 최근의 위기와는 별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칙대로라면 쌍용차는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 정부가 수많은 노동자가 묶인 쌍용차에 냉정하게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쌍용차가 간접적으로 코로나 여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는 수년간 축적된 결과물이지만, 최근의 위기는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번 사태의 시점이었던 마힌드라의 투자 계획 철회도 코로나 위기와 무관치 않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주주 마힌드라가 있는 인도 시장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다소 폭넓게 해석한다면 기안기금을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안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지는 않았지만, 두산중공업은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의 유동성 위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 때문이라고 여겼다.

다만 지원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특정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느냐는 아직 이른 이야기”라며 “채권은행의 의견도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男은행원, 평균 월급 1125만원

### 삼성전자·현대차보다 더 받는다 (800만원) (730만원)

통상 15년 이상 차장 역대 연봉  
女은행원, 남직원 '3분의 2' 수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의 질이 낮아진 가운데 ‘철밥통’으로 불리는 남자 은행원 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주요 은행의 1분기 남행원 평균임금은 3375만 원을 기록했다. 한 달에 1125만 원을 번 셈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월 800만 원)나 현대자동차(730만 원) 직원보다 더 받았다.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모두가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다. 1분기 여행원의 월평균 월급은 760만 원이었다. 남자 직원의 3분의 2수준이다.

이런 은행원의 고액 연봉은 연공서열식 호봉제 때문이다. 직무 능력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이 쌓인다. 통상 15년 이상 차장급이 되면 역대 연봉자가 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업종 인력 12만5000여 명 중 35%가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조직 구성원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도 주요인이다. 2010년에는 50대 이상 인력 비중이 100명 중 8명(7.6%)도 채 안 됐지만, 이제는 15명(15.3%)이 넘는다. 반면 피라미드형 조직의 하부를 담당하는 20대(22.7%→14.1%)와 30대(41.4%→37.7%)는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임금개편에 속도를 내는 정부가 올 초 은행원 호봉제를 뜯어고치고 했지만, 노조의 극심한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협의회’를 열어 호봉제 폐지를 재차 압박하자 노조가 “노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과 방법 △직무등급의 구체적인 비율 △인센티브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속에서 은행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인건비 통제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이대기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저성장으로 수익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지금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인건비를 줄여왔다”며 “직원 내보내 곳간 채운다는 사회적 비판이 뒤따르는 데다, 신입 직원, 인턴 등을 다시 뽑아야 하므로 비용통제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는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고비용·고수익 구조가 정착돼 있다”며 “우리도 개인별 평가를 통한 연봉제나 지점장을 매니저 역할에 한정하는 등의 직무 재분류 방안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신한카드-SBI저축銀 사이다뱅크 ‘최고 금리 6%’ 자유적금 출시

신한카드는 SBI저축은행과 함께 최고 6.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앱에서 만기까지 자유적금 유지 시 기본금리 2.1%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한카드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3.9%가 추가 적용돼 총 6.0%의 금리를 받게 된다.

우대금리는 9월 30일까지 10만 원 이상 이용 시 적용되며,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용



카드를 신규로 발급한 고객이나 직전 12개월간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받을 수 있다.

적금 가입기간은 1년, 월납입 한도는 최대 20만 원으로 선착순 2만 명까지 가입 가능하다. 행사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 박은평 기자 pepe@

# 사고 현장 날아간 구광모 “매우 송구...원점서 대책 마련”

## LG 총수 취임 2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총수 2년 만에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잇따른 그룹 내 안전환경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주요 계열사의 과감한 생산라인 재편도 이끌고 있다.

구 회장은 20일 긴급히 충남 서산시 LG화학 대산공장을 헬기 편으로 방문해 전날 발생한 사고 현장과 수습 상황을 살펴봤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2주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고와 대산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LG화학의 사고와 관련해 구 회장의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구 회장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많은 분께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경

**안전 혁신 고강도 주문**  
“위기 관리 실패한 기업은 몰락 경영 최우선 순위에 안전 둘 것”

**TV 생산 라인 재편**  
휴대폰 이어 경영 효율화 착수  
코로나 위기 이후의 성장 준비

영진에게 “최근 잇따른 안전·환경 사고에 대해 모든 경영진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구 회장은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경영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안전환경, 품질 사고 등 위기관리에 실패했을 때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환경은 사업을 잘하



구광모(가운데) LG그룹 회장이 20일 LG화학 대산공장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 LG

고 못하고를 떠나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며 “CEO들이 실질적인 책임자가 돼 안전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구 회장의 부친인 고(故) 구분무 회장도 2013년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관련, 그룹 CEO들에게 환경안전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LG실트론

등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의 책임 임원 등을 보직해임하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은 최근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의 생산라인도 과감하게 재편하고 있다.

이날 LG전자는 TV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미사업장의 TV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한·중·일을 비롯한 글로벌 T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성장이 정체된 TV 시장의 경영 효율화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LG전자는 평택사업장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생산라인 이전 결정은 총수인 구 회장의 결단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 게 그룹 안팎의 판단이다. 구 회장은 주력 계열사의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결단력도 발휘하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주)LG 주주총회에서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위기 이후의 성장을 준비하자”며 코로나19 이후 위기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은 고 구분무 회장의 2주기가 다. LG는 회사 차원의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 구분무 회장의 경영활동이 담긴 영상물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제네시스 ‘빅데이터’ 오픈 커넥티드카 생태계 확대

제네시스가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제네시스 디벨로퍼스’를 20일 선보였다.

제네시스 디벨로퍼스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운행 및 제원 정보,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의 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식으로 공개해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모든 데이터 공유의 목적은 고객 가치 제공을 위해 쓰인다. 물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 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원칙으로 내세웠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네시스 디벨로퍼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데이터 사용처와 목적을 등록하면 승인을 거쳐 API를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디벨로퍼스 제휴사는 차량과 연계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 제네시스 고객들은 더욱 고도화된 맞춤형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네시스는 차량 내·외부 및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제휴사와 함께 제네시스 고객에게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와 혜택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커넥티드카 시장을 지속해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제일기획, 중남미 첫 대규모 수주

제일기획은 중남미 시장에서 글로벌 스킨케어 기업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를 신규 광고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1882년 독일에서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바이어스도르프는 글로벌 광고전문매체 애드에이지(Ad age)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시장 광고비 지출 순위에서 61위를 기록한 대형 광고주다.

제일기획은 최근 바이어스도르프의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번 수주로 제일기획은 향후 3년간(2020~2022년) 칠레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9개 지역에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중남미 시장에서 처음으로 거둔 대규모 지역 단위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영록 기자 syr@

# SK이노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신사업 모색”...美 투자사 설립

## 정유·화학·배터리·소재 외 선제적 사업 아이템 확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인 ‘딥체인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의 미국 법인은 최근 ‘슈퍼 씨드(Super Seed) NY’라는 투자 전문 법인을 설립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유, 석유화

학, 배터리, 소재 등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과 사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과 맞아떨어진다. 최 회장은 오래전부터 ‘딥체인지’를 강조해 왔다. 혁신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서든 데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계열사 CEO들에게도 지속해서 “현재 자산가치가 큰 것이 미래에 작아질 수 있고, 현재는 자산가치가 작지만, 미래에는 확 커질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업종에 영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 버티보자”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최근 SK(주)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성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SK는 지난해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통해 K팝 기반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진출했다. 투자

자가 사업모델을 구상한 뒤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컴퍼니 빌드’ 형태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당장 가시적인 투자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1조7752억 원이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하반기쯤부터 차츰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께 본격적인 신사업 발굴 움직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 롯데케미칼, 반도체 소재 재도전 日 히타치 대신 쇼와덴코에 투자

### 지난해 말 히타치 M&A 불발 모기업 지분 확보로 기회 엿바

롯데케미칼이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쇼와덴코에 투자를 단행했다. 투자지분이 크지 않지만 고부가 소재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쇼와덴코에 베풀며 반도체 소재 분야까지 기회를 엿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쇼와덴코가 롯데케미칼이 작년 말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 불발된 히타치케미칼을 품은 회사라는 점에서 우회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기회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20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일본 쇼와덴코 지분 4.46%를 확보했다.

쇼와덴코는 불소계 특수가스 전 제품 라인업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CF(탄소·불소)계 식각 가스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북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지역에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롯데케미칼이 쇼와덴코에 투자한 것은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

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롯데케미칼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M&A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시장에 나온 매물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롯데케미칼은 “사업 자체 매력도, 당사 진입 가능성,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저가 매물 나와서 여러 옵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물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첨단소재를 흡수 합병하며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소재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상황에서 쇼와덴코에 대한 투자로 이 시장의 진입 가능성, 시너지 등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쇼와덴코가 지난해 말 롯데케미칼이 M&A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히타치케미칼을 인수한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히타치케미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것으로도 이번 지분 확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전자업체 히타치제작소의 화학 계열사 히타치케미칼이 매물로 나오자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불발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전자는 21일 패밀리허브(Family Hub)가 적용된 비스포크(BESPOKE) 냉장고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패밀리허브는 냉장고에 △식자재 관리 △가족간 커뮤니케이션 △주방 공간에서의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소비자들은 13가지 색상의 도어 패넬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출고가는 도어 패넬 사양에 따라 409만 원에서 509만 원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현대제철,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 철강 ‘품질 관리’ 아이디어 모집

현대제철은 기상청이 개최하는 ‘2020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를 공동 주관하며 철강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콘테스트에서 ‘공장 내 철강제품의 결로 발생 예측 모형 개발’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날씨 변화가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인 철강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 및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기상청과 함께 올해 콘테스트를 후원 및 주최하고 참가자들이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4년간 누적된 공장 내·외부 온도 및 제품 온도 데이터를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29일까지 대회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공모작은 내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및 향후 현대제철의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대표님의 자산, 지금 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 GFC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로  
 기업경영에 발생하는 Risk 관리와 Financial Consulting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입니다.  
 대표님의 귀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절세부터 승계까지 삼성생명 GFC와 상의해보세요.

서울(시청) 02-772-9306, 02-318-0527

서울(강남) 02-514-9017, 02-540-6029

인천 032-426-9476

수원 031-221-0326

대전 042-488-0646

부산 051-637-1826

대구 053-254-1132

광주 062-382-1291

# “스피커, 독거노인 말동무·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 SKT ‘인공지능 돌봄’ 1주년 이용 패턴 공개

노인 사용자 10명 중 7명 “AI스피커 매일 사용”  
음악감상·감성대화 통해 행복감 높이고 고독감 해소  
‘SOS 호출’로 23명 긴급구조... ‘치매 예방’ 효과 입증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SK텔레콤과 바른ICT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사용자 10명 중 7명이 매일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이상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사용해 활용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거노인 67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75세였고, 여성과 남성간 비율은 7대3이었다. 노인들의 AI 스피커를 이용하는 용도는 음악감상(95.1%), 정보검색

(83.9%), 감성대화(64.4%), 라디오청취(43.9%) 순으로 나타났다.

바른ICT연구소는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문화 방향 제시를 위해 2015년 4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바른ICT연구소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이용 전후 비교 시, 행복감과 긍정 정서가 높아지고 고독감과 부정 정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PC와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고 인공지능 돌봄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해본 노인에게서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인 22.6%는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다. ‘인공지능 돌봄’이 노인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가족 공백을 메꾸고



서울 성동구의 한 70대 사용자가 SKT의 ‘인공지능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고독감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은 강조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회적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심리적 안

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긴급 SOS를 호출한 총 건수는 328건이었다. 그 중 호흡 곤란, 고혈압·복통 등 긴급 통증, 낙상 등 부상 발생 등으로 119 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돼 실제 긴급구조로 이어진 건수는 23건이었다.

AI 스피커는 독거노인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 SOS’ 등을 외칠 경우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캡스(야간)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후 ICT케어센터에서 상황 확인 및 초도 대응을 하고, 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엔 119에 인계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줄어드는 노인들이 우울증과 소외감을 극복하는데도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됐다. 행복커뮤니티 ICT케어센터 또는

지자체(구청, 복지센터, 보건소 등)가 노인을 대상으로 유용한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소식 톡톡’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김지숙(70·여·성동구·가명) 씨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아리아가 말을 걸어주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준다. 늘 함께 있어 외롭지 않고 기분이 좋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돌봄’에서 제공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두뇌톡톡’의 인지 능력 향상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두뇌톡톡’은 SK텔레콤과 이준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협력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AI 스피커 ‘누구’와 대화하며 퀴즈를 푸는 방식이다.

이준영 교수 연구팀은 ‘두뇌톡톡’을 8주간 매주 5일씩 꾸준히 이용한 노인의 경우 장기 기억력과 주의력·집중력이 향상되고 언어 유창성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년 정도의 치매 발현 지연 효과가 예견된다고 분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음원 사재기는 이제 그만” 실시간 차트 잇따라 폐지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가 실시간 기준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음악순위 정보를 개편해 경쟁의 부작용을 줄이고 음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음원 업계에 따르면 지니뮤직은 조만간 24시간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순위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일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플로 역시 지난 3월 음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차트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플로 역시 실시간 기준이 아닌 24시간 기준의 재생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순위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지니뮤직과 멜론, 플로는 업계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음원시장 점유율은 멜론(39.5%), 지니뮤직(26.9%), 플로(22.2%) 순으로 총 88.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음원 상위 업체들이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음원 순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시간 차트는 오렌지간 동안 이른바 사재기나 ‘총공(팬 총공격)’ 등 조작이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용자들에게 생소한 음악을 조작으로 상위권에 올린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높은 순위에 오른 음악은

순서대로 재생하는 특성상 인기가 떨어지기 어려워 다양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 한 명의 가수가 앨범을 발매하면 이들의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 상위권을 차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명 가수에게 주는 선물 개념인데, 앨범 수록곡 대부분이 순위 상위권에 자리잡으면서 다른 가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란도 컸다.

업계에선 실시간 차트 폐지로 인해 음원 서비스 전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한다. 멜론, 지니뮤직, 플로를 제외한 다른 음원 업체 까지도 차트 개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체 시장에서 음원 서비스 업체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컴업,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키운다

### 2020 컴업 조직위 출범

“혁신벤처·스타트업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선도할 것”

“지금은 바야흐로 혁신벤처·스타트업의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기업의 성장세와 앞으로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의 유일무이한 벤처 행사로 거듭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한화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0년 컴업(COMEUP)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1월 개최될 컴업 행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컴업(COMEUP)’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컴업 브랜드를 론칭, 세계적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는 전세계 총 61개 국가에서 약 2만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 조직위원장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와 공공 조직위원장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스타트업, 민간지원기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 정부기관, 미디어 등 스



박영선(가운데) 중기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0’ 조직위 출범식에서 민간조직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6개 분야 22명이 조직위원을 맡게 됐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올해 컴업 행사가 지향하는 3개 대주제는 ‘Social System · Work · Life’이다. 슬로건은 ‘Meet the Future-Post Pandemic’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맞이할 가까운 미래를 한 발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의미를 담았다.

올해 행사는 비대면·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엔택트(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주제와 방식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온라인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디지털 부스와 온라인 콘퍼런스·IR 피칭 등을 집중 편성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비대면 기업은 올해 1분기 이미 3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지난 3년간 평균 37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성장하고 있다”며 “비대면 분야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반기 중점사업은 바로 비대면 기업의 글로벌화·플랫폼화”라며 “올해 컴업을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주제와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의 모범적 성공모델로 빠르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컴업 2020’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컴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 SK(주) C&C, 소통앱 ‘햅’으로 행복경영 실천

일하는 방식 혁신 등 ‘행복 아이디어’ 3개월 만에 65건 내보

## 웅진씽크빅 ‘스마트올 중간 성취도 평가’ 무료 제공

스마트디지털교육 1위 웅진씽크빅이 개학연기 등으로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올 중간성취도평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간성취도평가는 예년과 다르게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도 수준을 알 수 없기에, 실력을 확인하고 학습패턴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국어와 수학과목으로 진행되며, AI가

분석한 평가결과를 제공해 취약개념을 숙지하고 체계적인 복습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간성취도평가는 웅진스마트올 회원이 아니라도, 홈페이지에서 스마트올 체험을 신청하면 회원과 동일하게 시험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초등학교 중간고사 기간과 동일하게 29일까지 진행된다. 이재훈 기자 yes@

SK(주) C&C는 구성원 소통 앱 ‘햅’이다 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며 사회의 행복까지 키워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햅’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구성원들의 근무 위치, 고객사 보안 문제로 인한 웹 기반 소통 채널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오픈한 모바일 기반 구성원 소통 앱이다. 구성원 스스로 ‘행복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발적 실행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기

존 사내 소통 채널과 차별화된다.

‘햅’은 오픈 3개월 만에 구성원 주도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실현은 물론 구성원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행복을 키우는 핵심 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총 3833명의 구성원 중 300명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를 중심으로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행복추진위원

회’를 구성한다. 2주간의 기획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아이디어 실행에 들어간다.

구성원들이 현재까지 발의한 행복 아이디어는 총 65건에 달한다. 이 중 △전사 및 사업 부문별 소통 채널 통합 △회사 휴양소 신청 프로세스에 대한 AI 챗봇(RPA) 적용 △단위 조직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관련된 아이디어 등이 ‘좋아요’를 얻어 실행에 옮겨졌다. 이밖에는 구성원의 전문가 활동이나 역량 향상 활동을 격려하는 ‘행복 코인’, 공유 오피스 활용 개선안, 각종 IT 자산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제안 등이 구성원들의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갓뚜기’처럼... 착해지는 식품기업들

긍정적 이미지, 매출과 연결  
CJ제일제당 ‘미정당’ 시리즈  
하이트진로 청년자립 ‘빵그레’  
롯데제과 ‘지역 상생빵’ 등  
업계 ‘이미지 메이킹’ 노력



최근 식품업계에서 ‘착한 기업’을 향한 이미지 메이킹이 활발하다. 규모가 작은 협력사와 손잡고 제품을 출시하거나, 회사 사업과 관련 없는 청년 자립 사업을 지원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착한 기업’은 눈앞의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여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B2C 산업인 식품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가 매출로 직결된다는 특성이 있어 긍정적 이미지 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갓뚜기(God+오투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착한 기업 이미지를 쌓고 있는 오투기 사례나 부정적 이미지가 불매 운동으로 번져 ‘낙인 효과’에 시달리는 남양유업 사례 등은 식품업계에 상시적인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공익 사업을 펼치며 ‘착한 기업’으로 자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협력업체 미정과 함께 론칭한 떡·면·사리류 브랜드 ‘미정당(米丁堂)’ 떡볶이 2종과 갈국수 1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정당은 50년 이상 쌓인 노하우와 전문성, 그리고 CJ제일제당의 제품 기획력과 품질 관리 능력이 만나 탄생한 미정의 자체 브랜드다.

CJ제일제당은 미정과 함께 ‘미정당’을 론칭한 것은 2018년이다. 미정은 1963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국수 방과 떡 방앗간으로 시작해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면·떡류 전문업체로, CJ제일제당은 10년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통은 CJ제일제당이 맡고, 유망한 식품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CJ제일제당의 상생 브랜드인 ‘즐거운동행’을 적용했다. ‘즐거운동행’의 취지는 ‘유통망 지원을 통한 지역 업체 사업 지원’이다.

올해부터 ‘지역 빵집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빵집과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롯데제과도 두 번째 ‘지역 상생빵’을 출시하며 ‘이미지 제고’와 ‘수익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롯데제과 ‘지역 빵집 상생 프로젝트’는 국내 우수 빵집의 제품을 양산화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빵집의 경제 활동을 돕는 프로젝트다.

롯데제과는 1월 제과 명인 나정호 파티세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의 ‘나블리 베이커리’를 선정해 두 달여의 공동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쳐 ‘나블리 홍살빵’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1월 출시 후 현재까지 50만 개가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제과는 앞으로도 ‘지역 빵집 상생 프로젝트’를 전개해 지역 베이커리의 홍보 및 경제 활동을 돕는 한편 더 많은 우수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청년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는 20일 한국남동발전공단, 창원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 개소식(사진)을 가졌다.

‘빵그레’는 창원 지역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자를 선발해 제빵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일정 기간 직접 카페 운영을 경험하게 해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이트진로는 ‘빵그레’ 공간을 10년간 무상 임대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료 구입과 빵 운반에 필요한 차량도 함께 제공한다. 4월 27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한 ‘빵그레’는 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빵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운영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빵그레’가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하이트진로는 진심을 다하는 사회공헌이라는 기업의 경영가치를 실천하고 100년 역사를 가진 주류기업 역할에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부터 ‘청년창업리그’를 매년 개최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전문가 멘토링 제공, 사업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청년 창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포스트 코로나’ 해법 주문한 신동빈 롯데 회장

# “새로운 시대 게임룰에 맞는 먹거리 찾아 미래 대비해야”

## 2개월 만에 임원진 소집

“이번 위기만 잘 넘기자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쌓아 온 경쟁우위가 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한다.”

두 달 여 간의 일본 출장을 끝내고 잠실 사무실로 출근을 재개한 롯데그룹 신동빈(사진) 회장은 19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 그룹사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맞추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시하는 한편,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일본 출장길에 오른 신 회장은 이 달 2일 귀국해, 자택에서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친 뒤 18일부터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및 국내 자택에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경영 현안을 챙겨왔으며, 대면 회의는 약 2개월 만이다. 19일 진행된 회의에는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각 실장, 4개 BU장들이 함께 했다.

신 회장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현지 경제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그룹의 전략 방향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코로나19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기존의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법칙과 게임의 룰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렌드 변화와 우리 사업의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성장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두 달 간 일본과 한국에서

의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경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는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병행했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는 2주간 재택근무를 했다. 신 회장은 “비대면 회의나 보고가 생각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업종별, 업무별로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본인 스스로도 향후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의 정기적 시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물리적 거리로 그간 상대적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사업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신동빈 회장은 “지금은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도전 정신, 워닝 스피릿(Winning Spirit)이 전 임직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전환, 빠른 실행력을 통해 임직원 모두 미래성장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임직원들이 정부 및 그룹 지침을 잘 따르고 노력해준 덕분에 심각한 사내 확산 사례 없이 롯데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처럼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새로운 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올여름 책임질 ‘패션 샌들’

현대백화점이 수입 의류 전문 편집숍 ‘톰그레이하운드’에서 다양한 여름 샌들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른 더위와 비 소식이 반복되면서 시원하고 착화감이 편안한 ‘슬라이드(슬리퍼)’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톰그레이하운드 컬러 스트랩 샌들(23만5000원)’, ‘파이톤 슬라이드(28만5000원)’ 등이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전국 유명 맛집, 여기 다 모였네”

## 신세계백 ‘빵지순례&전국 이슈 맛집’ 팝업 행사

신세계백화점이 집에서 전국 유명 맛집과 특산물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팝업 행사를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은 21일부터 27일까지 강남점을 시작으로 28일 본점, 다음 달 5일 경기점 지하 식품관 행사장에서 ‘빵지순례 & 전국 이슈 맛집’ 행사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크로아상과 와플을 접목한 ‘크로플’과 ‘베이커스’, 서울숲 맛집으로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빅토리아 베이커

리’ 등 SNS에서 화제가 된 유명 디저트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크로플 1상자(5개입) 1만 5000원, 빅토리아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도넛 4500원, 베이커스 한판 브라우니 1상자(9개입) 1만6900원 등이 있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나온 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던 음식도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 강동아시아시장의 ‘이가네떡볶이’, 인천신포시장 내 전국 3대 닭강정 집인 ‘원조신포닭강정’ 등이다.

정정 제주의 지역 특산물도 준비했다.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전 점 식품관에서는 ‘제주 미식 여행’ 행사를 선보인다. 제주산 블루베리, 갈치, 제동목장 한우 등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의 대표 상품으로는 제주산 블루베리(200g) 1만5800원, 제주산 갈치(1미) 2만9900원, 제동목장 등심(1+등급, 100g당) 1만7900원 등이 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나들이를 갈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전국 맛집을 한 데 모은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동원F&B ‘양반 국탕찌개’로 한 상 똑딱

## 파우치 형태 HMR 14종 출시

동원F&B가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양반’을 앞세워 국탕찌개 시장에 진출하고 가정간편식(HMR) 사업을 강화한다.

동원F&B는 간편 파우치 형태의 HMR 제품 ‘양반 국탕찌개(사진)’ 14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반 국탕찌개’는 ‘재료가 살아야 맛이 산다’는 양반 브랜드 철학에 따라 엄선한 자연 재료를 가마솥 전통방식으로 끓여내 정통 한식의 깊은 맛을 담아냈다.

‘양반 국탕찌개’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냄비에 부어 5분만 끓이면 완성된다. 모든 재료를 한번에 담아 끓여내는 ‘가마솥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국물 맛이 깊고 재료의 식감이 우수하다. 파우치 포장으로 보관도 간편하다.



‘양반’은 35년 전통의 국내 최초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로 1986년 양반김, 1992년 양반죽, 1995년 양반김치를 연이어 출시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책임져왔다. 동원F&B는 이번 ‘양반 국탕찌개’ 출시를 통해 양반 브랜드 제품으로만 온전한 한식 차림 한 상을 완성했다.

동원F&B는 국탕찌개 시장 진입과 동시에 ‘양반 국탕찌개’의 올해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하고, 2022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제품군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삼성 '끌고' SK '밀고' ... K-바이오 글로벌 날갯짓

국내 대표 기업 삼성과 SK의 제약·바이오 계열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을 나란히 제약·바이오로 정한 두 그룹 중 어느 쪽이 'K-바이오'의 주도권을 쥘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내 안과질환 치료제 'SB11' (성분명 라니비주맙)의 미국과 유럽 판매허가를 신청한다. SB11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여섯 번째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넨텍이 개발한 '루센티스'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11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 기준을 달성,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임상외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루센티스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4조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물질특허는 미국에서 올해 6월, 유럽에서 2022년 1월 만료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동시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 (성분명 에타너셉트)를 시작으로 '플릭사비' (성분명 인플릭시맙), '임탈디' (성분명 아달리우맙)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유럽과 미국에 내놓은 회사는 '온트루잔트' (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출시를 통해 항암제에도 손을 뻗었다. 이어 안과·희귀질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6년 유럽 시장에 선보인 베네팔리를 필두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은 꾸준히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제품의 매출은 총 7억3830만

프로젝트	제품명	성분명	적응증	오리지널의약품	현황
SB4	베네팔리	에타너셉트	류머티즘관절염	엔브렐	유럽·미국 승인
SB2	플릭사비	인플릭시맙	류머티즘관절염	레미케이드	유럽·미국 승인
SB5	임탈디	아달리우맙	류머티즘관절염	휴마라	유럽·미국 승인
SB3	온트루잔트	트라스투주맙	유방암	허셉틴	유럽·미국 승인
SB8	-	베바시주맙	대장암·폐암	아바스타인	유럽·미국 허가접수
SB11	-	라니비주맙	황반변성	루센티스	임상3상 완료
SB12	-	에쿨리주맙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솔라리스	임상3상 진행

※ 출처: 삼성바이오에피스

프로젝트	제품명	적응증	현황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	뇌전증	미국 허가
솔리암페톨	수노시	수면장애	미국·유럽 허가
카리스바메이트	-	레녹스-가스트 증후군	임상 1b/2상
렐레노프라이드	-	희귀신경계질환	임상2상 준비
SKL13865	-	집중력 장애	임상1상
SKL20540	-	조현병	임상1상
SKL-PSY	-	조울증	임상1상

※ 출처: SK바이오팜

## 바이오시밀러 '삼성'을 SB11 美·유럽 판매 신청 자가면역질환·안과질환 등 다양한 제품 동시개발 전략

달러(약 8510억 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설립 8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흑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제품 매출 총 2억1880만 달러(약 2670억 원)를 올리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억 달러를 넘겼다. 지난해 1분기(1억7440만 달러)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대장암·폐암 치료제 '아바스타인'의 바이오시밀러 'SB8' (성분명 베바시주맙)의 유럽과 미국 허가에 착수했다. 유럽에서는 연내 허가가 전망된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 'SB12'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 독자 개발 신약의 FDA 허가에 성공한 SK바이오팜은 본격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전날 제출하고 6월 중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은 5000억 원 안팎의 신약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는 지난 11일 (현지시간)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 회사는 세노바메이트의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FDA 판매허가신청(NDA)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판매 역시 미국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세워 직접 맡는다.

글로벌 주요 국가 뇌전증 시장 규모는 약 61억 달러(약 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3억 달러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세노바메이트는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로

## 자체 신약 'SK'

##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주력 수면장애 솔리암페톨 첫 결실 뇌전증 세노바메이트 美 출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3년 신약 개발에 뛰어들 SK는 26년 동안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개발에 주력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SK를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성과는 지난해 3월 수면장애 신약 '솔리암페톨' (미국 제품명 수노시)의 FDA 승인이었다. 솔리암페톨은 SK바이오팜이 발굴해 임상 1상을 마치고 2011년 제2 파마슈티컬스에 기술 수출한 약물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시장에 출시됐으며, 유럽 허가도 획득했다.

삼성보다 제약·바이오사업의 역사가 긴 SK는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다질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SK바이오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혁신신약 2종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차기 파이프라인은 소아 희귀 뇌전증인 레녹스-가스트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로, 현재 임상 1b/2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희귀 신경계질환 치료제 '렐레노프라이드'와 집중력 장애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세노바메이트의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독자 개발을 우선 순위에 놓고 각 국가에 맞는 허가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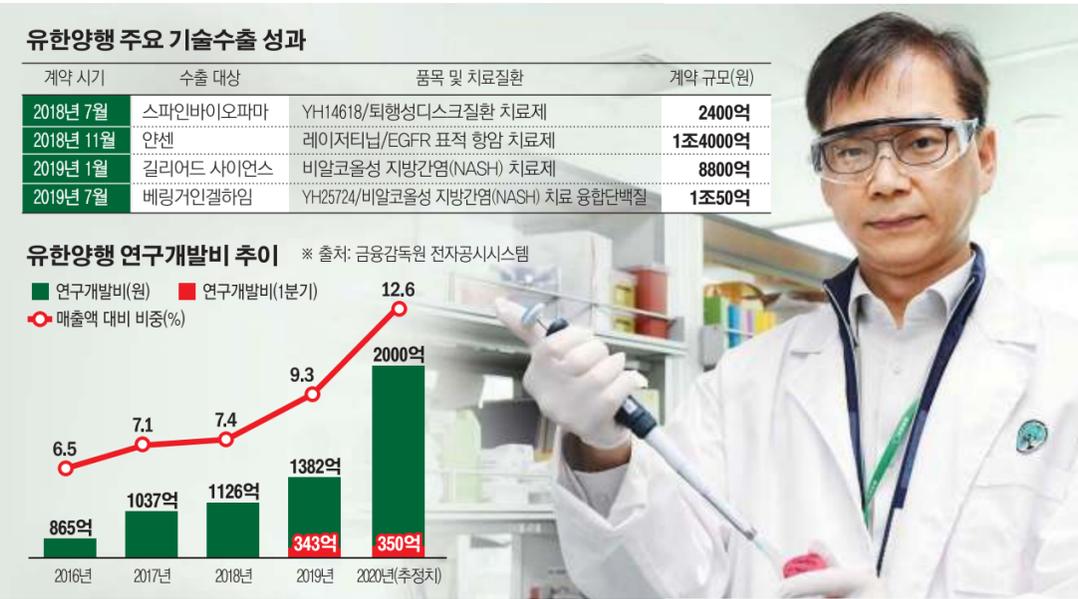
# "100년 기업 책임질 개방형 혁신... '제2 레이저티닙' 찾는다"

## 오세웅 유한양행 연구소장 신약 후보물질 4건 기술수출 초기 계약금만 1650억 받아 올해 연구개발 비용 2000억 27개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한 꾸준한 연구·개발(R&D)만이 미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9일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에서 만난 오세웅 소장(전무)은 다가올 100년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해답을 이 같이 제시했다. 현재 250명 연구원들을 이끌며 연구소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있는 그는 "짧은 기간 4건의 기술수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지만 국내 전통제약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R&D 중심회사로 인정받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1년(2018년 말~2019년 초)도 채 안 되는 기간동안 총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4건의 기술수출을 기록했다. △스파인바이오팜에 퇴행성 디스크질환치료 후보물질(YH14618) 약 2400억 원 △안센바이오텍에 비소세포 폐암치료 후보물질 레이저티닙(YH25448) 1조4000억 원 △길리어드사이언스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 후보물질 8800억 원 △베링거인겔하임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 위한 융합단백질(YH25724) 1조500억 원 등은 오픈이노베이션과 R&D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오 소장은 2015년 취임한 이정희 사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꼽는다. 오 소장은 "R&D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이 사장은 취임부터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화두로 정하고 인재, 기술교류 등 과감한 혁신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외형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로 유한양행은 지금까지 1650억 원의 계약금을 수령했다. 초기 계약금과 개발 단계마다 받는 마일스톤 일부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는 "10~15년 전만 해도 가장 큰 R&D 수익은 1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 4건의 사례만으로 비교 불가한 수익을 올리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R&D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내부 역량도 끌어올리고 있다.

오 소장은 "레이저티닙 기술수출을 기점으로 협상능력, 상품을 보는 안목, 빠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접촉하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임상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에서 많은 격차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속적으로 R&D와 바이오벤처 투자를 가속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30개 바이오벤처(해외법인 포함)에 총 3200억 원을 투자했으며 해외 투자법인을 관리하는 글로벌 OPS(오퍼레이션)팀, 바이오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하는 글로벌 BD팀 등을 신설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무엇보다 연구개발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자 R&D 비용을 매출액 대비 10%가 넘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며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소장은 "현재 제2의 레이저티닙과 같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기술 도입 시도가 진행 중이며 27개 연구개발 과제들에 대한 결과물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기존 4건의 기술수출들이 마일스톤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와 같은 연구 교류마당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더 창의적인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소장은 "신약개발의 험난한 여정에 희망을 잃지 않고 제2의 레이저티닙을 만들어내 미래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글/노은희 기자 selly215@ 사진/고이만 기자 photoeran@

## 녹십자셀 세포치료제 GMP 국내 최대 규모 식약처 허가

세포치료 전문기업 GC녹십자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용인 셀센터 내 GMP 시설 제조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셀센터는 2016년 첫 삽을 뜬 후 2018년 연면적 2만820㎡(약 630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완공해 최근까지 GMP허가를 위한 시험과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진행했다. GC(녹십자홀딩스)와 GC녹십자셀이 약 11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중 세포치료제 생산 및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에 7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번 제조허가를 통해 셀센터에서 연간 2만 팩의 '이문셀엘씨주' 생산이 가능하다. 셀센터는 세포치료제 생산에 최적화된 cGMP수준의 첨단 설비 및 생산시설을 갖췄다. 고도화된 관리 및 생산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포치료제 생산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문셀엘씨주 생산능력 확대 이외에도 세포치료제 전문 CMO사업 및 차세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부문에서 GC녹십자 R&D센터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이다.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는 "최첨단 생산시설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높은 안정성과 품질을 갖춘 세포치료제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포치료제 CMO사업을 본격화해 미국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준비 중이다. 차세대 세포치료제로 연구개발하는 CAR-T 치료제와 글로벌시장 진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셀엘씨주는 국내세포치료제 중 최초로 2015년 연간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350억 원을 달성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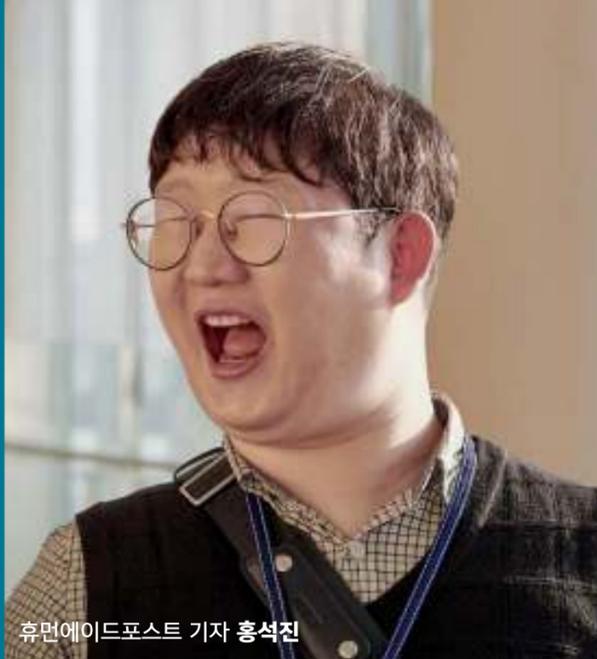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증권사 '애물단지' 전략... ELS 어저나

〈주가연계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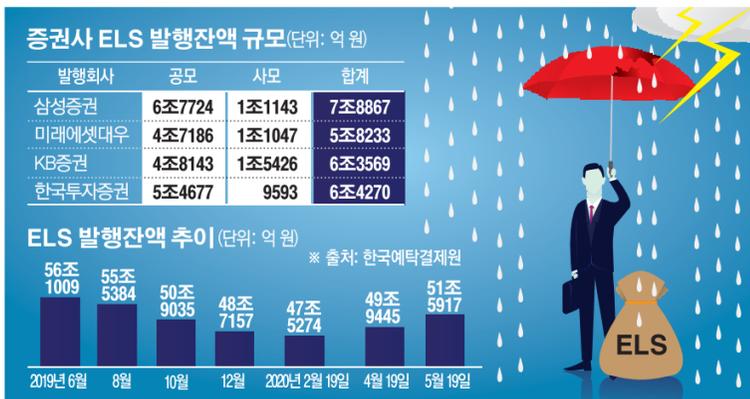
코로나에 글로벌 지수 폭락 영향  
발행잔액 5개월 새 5兆 '급감'

금융당국, 발행액 '총량제' 검토  
"상품 비중 높아... 시장 위축" 우려

증권사 수익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ELS가 애물단지로 전략했다.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본 상태에서, 당국이 추가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잔액은 51조5917억 원이다. 지난해 말 56조 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7조8867억



원), 한국투자증권(6조4270억 원), KB증권(6조3569억 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체 해지와 높은 수수료 수익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ELS(주가연계증권)가 예상치 못한 악재로 휘청이면서 증권가 도 혼란에 빠졌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지수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등 건전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증권사의 실적 급감 대부분은 상품운용 수익 감소에 기인하는데 ELS 관련 수익이 대부분 반영돼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글로벌 지수가 3월 30%포인트 이상 하락해 자체 헤지 비용이 상당했고 마진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주로 S&P500, 닷케이 225, 유로스톡스 등 각 국가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특정 기간 동안 보험권에만 머물러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그러나 올해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이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마진폭(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

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ELS가 돌발 변수로 고꾸라지면서 증권가는 당황한 모습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에 나서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ELS 발행액 한도를 정하는 총량제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들의 경우 해당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칫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제시 수익률이 높은 ELS가 많이 출시됐고 판매도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시장이 다시 급락하거나 규제 확대에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코로나에 규제까지... 리츠시장 '사면초가'

부실 자산 편입 등 리스크 반영  
국내 상장 7개 종목 모두 하락  
국토부 불법행위 관리 강화 나서  
일각선 "시장 정화로 활성화 도움"

급성장세를 보이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리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업계의 긴장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20일 현재 NH프라이머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랩,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 등 모두 7개 종목이다. 이리츠코크랩이 올해 들어 21.91% 하락률이 가장 컸고, 이어 케이탑리츠(-19.85%), NH프라이머리츠(-17.73%), 모두투어리츠(-14.69%), 신한알파리츠(-14.45%), 롯데리츠(-12.33%), 에이리츠(-2.13%) 순이다.

리츠는 지난해만 해도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때문에 비교 시점을 지난해 하반기로 넓히면 이들 종목의 하락폭은 19~31%로 더 커진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상승이 오히려 고평가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 종목

상장 리츠의 올해 주가 변동률

종목	주가 변동률
이리츠코크랩	-21.91%
NH프라이머리츠	-17.73%
케이탑리츠	-19.85%
모두투어리츠	-14.69%
신한알파리츠	-14.45%
롯데리츠	-12.33%
에이리츠	-2.13%

\* 출처: 한국거래소

이 주로 편입하고 있는 부동산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리테일 업종이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실적하락 우려가 반영되면서 상대적 낙폭이 컸다. 여기에 일부 리츠들이 부실자산 편입 등으로 리스크가 반영된 것 역시 주가 하락을 부채질 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방어주로 작용하던 리츠의 수익률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 우려 확대에 따라 주식시장을 아웃퍼폼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테일 리츠들의 리스크 대비 주가 낙폭이 과대해 보이지만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가 리츠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 움츠러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선 이유는 리츠 시장 자산 규모가 2017년 34조2000억 원에서 올해 4월 51억3000만 원으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리츠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츠가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돼 인가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고,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된 사례도 있었다. 허위 대출 후 1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한 리츠가 달미를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칼을 빼든 것이 오히려 시장이 정화되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최근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비교적 잘 컨트롤 되고 있고 재개되는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본다"며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비교적 자유롭고 추가 오피스 자산이 편입될 신한알파리츠를 추천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롯데리츠와 이리츠코크랩도 좋다"고 덧붙였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신용융자 10兆 넘었다

두 달 새 3조7335억 ↑  
개미들 '빚 투자' 급증



최근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거래 활용이 크게 늘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19일 기준 10조 1410억 원을 기록했다. 18일자로 10조 원을 넘어선 후 하루 만에 600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에서 4조8851억 원, 코스닥에서 5조2559억 원으로 집계돼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거래 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월 초까지 9조~10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2월 24일에는 올해 최대 규모인 10조 5435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 위축과 반대매매 청산이 겹쳐 3월 25일(6조4075억 원) 최저점을 찍기도 했다. 이후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3조 7335억 원이 불어난 셈이다.

신용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의미한다. 통상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증가하곤 한다.

최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빚을 내 상승장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피지수는 3월 19일 장중 최저 1439.43까지 떨어진 후 20일 최고 1988.22까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700선을 넘어섰다.

늘어난 유동성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최저점을 찍은 3월 19일부터 이날까지 개인은 코스피에서 9조3315억 원, 코스닥에서 2조2507억 원을 사들였다. 같은 기간 외인, 기관이 매도세를 보인 것과 다른 양상이다.

코스피 신용비율상위 종목으로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모나리자, 디피씨, 세우글로벌, SK케미탈우, 우리들제약, 씨니전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비트컴퓨터, SK바이오텍, 에이텍, 브이티지엔피, 비씨월드제약, 웰크론, 미코 등이 신용비율 상위권에 올랐다.

이정희 기자 ljh@

## 탄탄한 재무 바탕 '부동산 쇼핑'... 수익률 극대화

### 상장사 재무 분석

#### 이화전기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앞다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화전기가 거액의 부동산 쇼핑에 나서 주목된다. 탄탄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화전기는 전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369억 원에 양수했다. 양수 대금은 이화전기 자산의 16.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 경매로 나온 건물이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6층짜리 근린시설(상가빌딩)로 감정평가액은 404억 원이다. 양수가액과 비교하면 8.7%가량 저렴하게 사들인 셈이다. 해당 건물에는 다수 임차인이 들어가고 있

이화전기 별도기준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1Q
매출	420	568	39
영업이익	-37	6	-22
순이익	-20	1	-15
부채비율	7.9	7.9	12.8
유동비율	1,567.9	1,070.5	820.5

#### 코로나 사태에 본업 실적 부진 연 5억 이상 영업 외 수익 기대

며 매월 1억 원 이상의 월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이화전기가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은 사내 유희 자산을 묵히지 않고 활용하려는 것은 물론, 본업에서의 실적 부진을 일부 만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화전기는 최근 수년간 적자와 흑자를 오가고 있다. 2018년 매출 420억 원에 3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가 작년에는 매출 568억 원, 6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또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작년보다 45.7% 줄어든 39억 원에 그쳤고 영업손실은 작년 7억 원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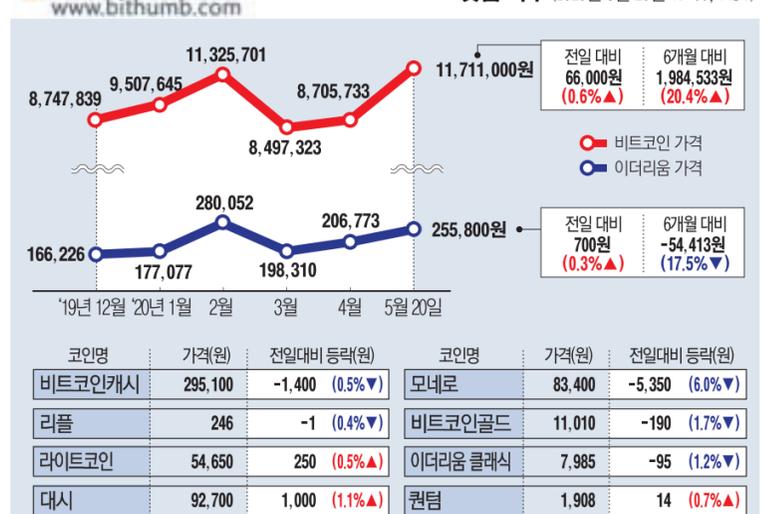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로 발생할 가의 수입은 이화전기로서도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화전기는 이번 부동산 양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70억 원을 차입했는데, 이는 별도로 매월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월세에서 차입 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5억 원 이상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금액은 이화전기가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같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매각에 따른 차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bithumb 빚썸

빗썸 지수 (2020년 5월 20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빙그레, 물류센터 화재 배상받는다

### 대법, 손해소송 일부 승소 확정 “창고 실소유자 69억 물어줘야” 법적 소유자 신한銀은 책임 없어

빙그레가 2012년 발생한 화도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로 69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빙그레가 A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2012년 9월 남양주시에 있는 화도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빙과, 유음료 등이 불에 타 손해를 입었다며 A 사와 B 건물위탁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 사는 2012년 5월 물류 창고를 매입하고 신한은행과 자산보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B 사와는 다른 부동산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었다.

재판에서는 창고의 직간접 점유 관계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실질적 소유자(A 사) △형식적 소유자(신한은행) △물류창고 관리업체(B 사) 중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사가 화재 발생 당시 창고 위탁관리업체로서 보존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접 점유자”라며 B 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에 모든 책임을 묻기는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하는 등 40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B 사는 물류창고를 사실상 지배하기는 했으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사가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B 사에 지하창고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만큼 물류창고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손해액 94억 원 중 화재보험금 수령액(24억 원), 창고비 등 상계액(10억 원)을 제외한 69억 원을 빙그레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1, 2심은 신한은행에 대해 “신탁 계약상 수탁자로서 법적 소유자이나 물류창고의 직접 점유자라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파란 서울 하늘 전국 최대 미세먼지 ' 좋음' 수준을 보인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쾌청하다. 신태현 기자 holijak@

## 檢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35년 구형

### 파기환송심서 “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이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 2억 원, 이외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들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기환송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 달



라”고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심리를 병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박원순 “지방정부 첫 감염병 연구센터·조사실 만든다”

### 올 하반기 전문가들로 구성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한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시청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과 공공보건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자제적인 연구센터 등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로 이어진다”며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동



시에 중앙정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연구센터는 올 하반기 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책을 연구하겠다”며 “역학조사실을 통해 신속 대응단과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

험하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며 “정부와 다른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대응단계를 7단계로 세분화한다. 2주일간 신규환자 발생 단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1→경계2→심각1→심각2→회복기’ 등으로 나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재미

공감

위로

##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채널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채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채널 TV)

구독 문의 (02) 799-2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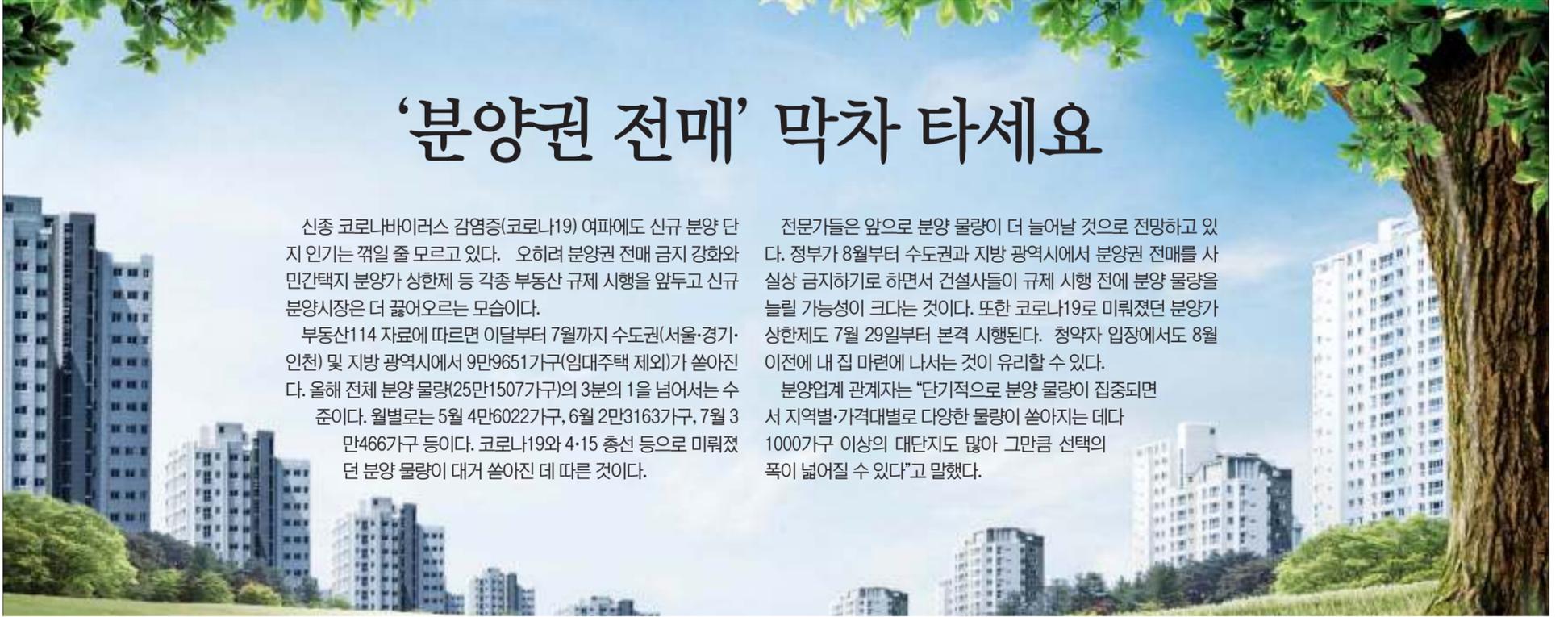
# ‘분양권 판매’ 막차 타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신규 분양 단지 인기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오히려 분양권 판매 금지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규 분양시장은 더 끓어오르는 모습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시에서 9만9651가구(임대주택 제외)가 쏟아진다. 올해 전체 분양 물량(25만1507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월별로는 5월 4만6022가구, 6월 2만3163가구, 7월 3만4667가구 등이다. 코로나19와 4·15 총선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권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하면서 건설사들이 규제 시행 전에 분양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분양가 상한제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약자 입장에서도 8월 이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분양 물량이 집중되면서 지역별·가격대별로 다양한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도 많아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의정부역 인근... 서울 삼성역까지 16분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을 내달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은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아파트 172가구(전용면적 59~106㎡)와 오피스텔 60실(전용 84㎡)로 이뤄졌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9㎡형 32가구 △84㎡형 138가구 △99㎡형 1가구 △106㎡형 1가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가깝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정착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약 16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의정부IC, 호원IC 등으로의 진입도 쉽다.

반경 약 1km 내에 하나로마트(가능점)와 신세계백화점(의정부점)이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도 2021년 3월 경기 북부권 최대인 병상 1234개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 여건도 좋다.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별말어린이



이공원, 무한상상시민정원, 역전근린공원, 평화의광장, 직동근린공원, 백석천, 중앙천 등도 가깝다.

단지는 지상 49층 고층으로 조성돼 조망이 우수하다. 일부 가구에서는 도봉산과 수락산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전 가구 4베이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이 뛰어나다. 아파트 전용 84㎡, 99㎡, 106㎡형에는 거실 팬트리룸을 제공한다.

의정부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견본주택은 의정부경찰서 부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 AI 플랫폼 적용, 가구 대부분 ‘바다 조망’

### GS건설 속초 디오션 자이

GS건설이 강원 속초시 동명동 일대에 짓는 ‘속초 디오션 자이’ 아파트가 이달 본격 분양에 나선다.

속초 디오션 자이는 최고 43층으로 높이만 135m에 이른다. 속초에서 40층이 넘는 주거시설은 속초 디오션 자이가 처음이다. 단지 3개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대부분 가구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단지에는 속초 최초로 입주민 특화 시설인 스카이 아너스클럽이 각 동 24층에 들어선다. 드시엘 라운지, 스파 드메르 게스트룸, 랑데부 파티룸 등도 단지 안에 조성된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국내 모든 통신사 음성 엔진과 연동되는 자이 AI 플랫폼 기술도 적용돼 입주민들은 실내 기기 제어는 물론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속초 디오션 자이는 속초시의버스터미널, 속초항 국제여객선터미널과 가깝다. 중앙로와 장안로 등을 이용한 단지 진입도 쉽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일본, 중국, 대만 등 25개 해외 노선과 3개 국내 노선이 취항 중인 양양국제공항도 7번국도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2026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며, 정당 계약은 15~17일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요건은 19세 이상의 강원도 거주자로 6개월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과 예치금만 충족되면 된다. 비(非)규제 지역이어서 가구주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도 까다롭지 않고 중도금의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 공원 품은 아파트, 교통·편의시설 ‘굿’

### 대우건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용인시에서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31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7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 231가구 △74㎡ 276가구 △84㎡ 170가구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대 영덕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단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기존 도시공원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선 총 8만5443㎡ 규모 중 5만9828㎡ 규모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단지가 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성은 물론이고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수십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서울 강남권 진입도 쉽다. 인접한 수원 신갈·흥덕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용인선 광교 연장사업(2025년 개통 예정) 계획으로 101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용인선 광교 연장사업은 총 6.8km로 분당선 기흥역을 기점으로 흥덕지구, 광교신도시를 거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잇는다. GTX-A 용인역(가칭)이 2023년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15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차량 15분 이내 거리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비롯해 코스트코, 아케아, 롯데마트, AK& 기흥, 롯데시네마 생활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도보권에 정곡초등학교가 있다.

대우건설은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으로 단지를 설계하고, 대형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최장 10년 임대... 입주 주택 직접 보고 계약

### 부영주택 진주 포레스트 부영

부영주택은 이달 25일부터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 포레스트 부영’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진주 포레스트 부영은 이날 특별공급 신청을, 26일과 27일엔 각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정당계약은 15~17일이다. 진주 포레스트 부영은 공사를 마친 후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여서 입주할 주택을 직접 둘러보고 정당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진주 포레스트 부영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높이로 11개 동이 들어선다. 총 840가구가 공급되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59㎡ A형과 B형 두 가지다.

진주 포레스트 부영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다. 임대 보증금은 8600만 원, 한 달 임대료는 2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임대주택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리한 보증금 인상 걱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포레스트 부영은 진주혁신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 혁신



도시 입주할 공공기관으로 통근하기 편하다. 남강교와 양천교, 김시민대교 등을 통해 남강 건너 진주 원도심으로도 편하게 오갈 수 있다. 광역교통시설로는 KTX 진주역과 사천공항이 각각 자동차로 10분, 20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맞은편에 무지개초와 대곡중이 학군을 이루고 있다. 부영주택 측은 통학 거리가 짧은 만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변 대학으로는 경상대와 진주교대, 연암공과대, 한국국제대, 경남과학기술대 등이 있다. 롯데몰과 홈플러스, 남강산책로, 진주종합경기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단지 가까이 있다.

## 지하철부터 KTX까지 6개 노선 '교통요지'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전용면적 37~84㎡까지 총 486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37㎡ 19실 △38㎡ 38실 △53㎡ 76실 △56㎡ 19실 △59㎡ 19실 △71㎡ 1실 △84㎡ 314실 등이다. 옛 성바오로병원 개발사업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가 위치한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동북부 지역 최고의 교통 요지로 꼽힌다. 현재 지하철 1호선·경원선·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강릉선 등 총 6개 노선이 지나고 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는 청량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여기에 추가로 GTX-B노선(2019년 8월 예비타당성 통과), GTX-C노선(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통



과)과 더불어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강북횡단선(추진 중), 면목선(추진 중)도 계획돼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약령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등을 도별로 이용할 수 있다.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삼육병원, 서울성삼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가깝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1월 동대문구 제기·청량리동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총 42만892㎡에 대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다. 이 일대는 총 사업비 543억 원이 투입돼 '세대가 모이는 전국 최대 상업·문화의 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청량리역 일대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GTX 개통 등 대형 개발 호재도 많아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모두 좋은 분양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설·제기동역 가깝고 GTX 수혜도 기대

### 삼성물산 래미안 엘리니티

삼성물산이 다음 달 서울 강북권에서 브랜드 대단지인 '래미안 엘리니티'를 분양한다.

래미안 엘리니티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16개 동, 총 1048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1~121㎡형 4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51㎡A타입 52가구 △51㎡B타입 12가구 △59㎡A타입 63가구 △59㎡B타입 10가구 △74㎡A타입 16가구 △74㎡B타입 70가구 △84㎡A타입 67가구 △84㎡B타입 87가구 △84㎡C타입 55가구 △84㎡D타입 34가구 △89㎡형 5가구 △101㎡A타입 1가구 △101㎡B타입 1가구 △109㎡형 1가구 △121㎡형 1가구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형 이하 중소형 타입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전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해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좋다. 지하철 신설동역(1·2호선, 우이신설선)과 제기동역(1호선)이 도보 거리에 있다. 제기동역에는 동북선 경전철(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정차할 예정이다. 제기동 다음 역인 청량리역에서는 분당선, 경춘선, 강릉선KTX를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정차도 추진 중이다. 내부순환로 마장IC가 가깝고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



선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이마트(정계전점), 홈플러스(동대문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청량리점) 등 각종 생활편의 시설도 반경 2km 이내에 있다. 경동시장, 신설동종합시장, 동묘시장 등 전통시장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고대안암병원과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 접근성도 좋다. 송인근린공원, 개운산근린공원, 정계천, 성북천, 정릉천 등 녹지와 수변시설도 인접했다.

단지는 대광초(사립), 용두·종암초, 성일중, 대광중, 대광고(자율형사립고), 용문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고려대, 성신여대 등 대학교도 가깝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8월이다.

## 달구벌대로 인접... 도심 출퇴근 용이

### 금호산업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금호산업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이달 분양한다.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높이로 8개 동이 들어선다. 아파트 869가구와 오피스텔 76실이 입주하는 주상복합단지다. 전용면적은 아파트는 가구당 59~231㎡, 오피스텔은 호실당 84㎡다.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이름대로 대구 지하철 다사역 맞은편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대구 시내를 동서로 잇는 달구벌대로와도 인접해 있어 차로 수성구, 달서구 등 도심권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광역교통시설로는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KTX 서대구역이 내년 문을 연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다사초교·유치원 등이 단지와 맞닿아 있다. 다사중·고도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단지 주변 생활시설로는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와 다사우체국, 달성문화센터, 계명대 동산병원, 이마트 성서점, 홈플러스 성서점 등이 있다. 단지 안에도 총넓이 3358㎡, 2층 높이로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대구 야경 명소로 유명한 강정보 유원지와 디아크 문화관이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다. 1km만 나가면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



이 마련된 금호강을 즐길 수 있다.

금호산업은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고급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달성군 일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데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금호어울림' 브랜드를 붙인 단지이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고급화를 위해 단지 최상층에 펜트하우스를 배치했다. 또 단지를 남향 중심으로 배치해 통풍성과 채광성을 높였다. 동 간 거리가 넓어 사생활을 보호하기도 적격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목적 잔디마당과 어린이·유아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도서관, 카페 등이 들어선다.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문을 연다.

## 오피스텔 입주자에 빌트인 가전 선물

### 포스코건설 더샵 광주 포레스트

포스코건설은 이달 분양하는 광주 북구 문흥동 '더샵 광주 포레스트'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주자의 가전제품 구매 부담을 덜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더샵 광주 포레스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가전제품은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3구 인덕션 등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빌트인 가전 무상 제공을 통해 주거형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는 1~2인 가구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품격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샵 광주 포레스트는 지상 최고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90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84실로 이뤄졌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84㎡형 679가구 △101㎡형 225가구 △121㎡형 1가구 △131㎡형 2가구가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모든 호실이 전용 59㎡ 단일형이다.

포스코건설은 오피스텔 입주자 편의를 위해 호실당 주차 공간을 1.59대 1로 넉넉히 확보했다. 3베이(거실과 방 두 개를 전면 배치하는 설계)·편상형 설계가 적용돼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광과 통풍도 좋다. 음성인식 인공지능으로 집안 곳곳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인 '아이큐텍



(AiQ Tech)'과 어린이 물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다.

더샵 광주 포레스트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와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유주택자·기존 당첨자 신청 제한도 없다. 당첨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인기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더샵 광주 포레스트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로 갈음한다. 청약 관련 문의는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도 받는다.

## 집 있어도 청약 가능... 전매기한 6개월

### 신영 울산 지웰시티 자이

신영은 울산 동구 서부동 일대에 조성하는 '울산 지웰시티 자이'의 1순위 청약을 이달 진행한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5층~지상 37층, 18개동, 전용면적 59~107㎡ 총 2687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서부동 일대는 2016년 울산대교 개통으로 울산 시내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다. 단지 인근 방어진순환도로, 봉수로, 염포산터널 등을 통해 울산 동구와 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현대중공업이 위치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울산공장, KCC울산공장, 현대모비스 울산염포동공장 등도 차량으로 20분 이내 거리에 있다.

현대백화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부유치원, 서부초, 녹수초, 현대중, 현대청운중, 현대고, 현대청운고 등도 도보권에 있다. 단지 내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전매기간이 6개월로 짧고, 안심 전매 프로그램으로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1



차 계약금도 전용 59㎡형이 1000만 원, 전용 84㎡·107㎡형은 2000만 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전매제한 강화 방안으로 8월 전에 분양하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 민간 분양단지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울산 지웰시티 자이 견본주택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6월 2일(1단지)과 3일(2단지)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같은 달 15~18일 4일 동안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1단지과 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하늘은 맑고 혜택은 많다

종이 통장 만들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최고 연 2.35%의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하세요  
KB맑은하늘적금



▶ 최고 연 **2.35%**  
2020.05.12기준, 세전, 3년제, 우대금리 연 1.0%p 포함

▶ 환경 미션 달성 시  
최고 연 1.0%p  
우대금리 제공

종이 통장  
만들지 않기  
[연 0.1%p]

종이 서식  
사용하지 않기  
[연 0.2%p]

대중교통  
이용하기  
[최고 연 0.6%p]

환경상식  
퀴즈풀기  
[연 0.1%p]

▶ 대중교통/자전거  
상해관련 무료보험 제공  
[최대 2억원 보장]

[KB맑은하늘적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를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848호(2020.05.12),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

# “건설부동산 분야, 모든 법리 망라된 종합예술”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 파트너변호사

25년간 ‘한 우물’...최근 팀원들과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책 내 코로나19로 공사 중단·지연 많아 하반기 관련 분쟁 크게 늘 것

“올해 하반기 ‘건설경제 직격탄’, ‘한국판 뉴딜’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파트너변호사(54·사업연수원 22기·사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닥칠 주요 경제 현안을 이같이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입사한 후 25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에 매진해온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오 변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비용 문제가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

고 분쟁이 현실화되면 건설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 기업들이 비용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에 공공조달은 안전한 수입원이지만 과거 수년간 답합 조사로 과태료를 수백억 원씩 부과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철수하는 대형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분쟁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에 공공공사가 많아지면 대형사들도 다시 뛰어드는 등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쟁 사건을 맡다 보면 절차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기



업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그에 따라 응대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 최고 로펌 건설부동산 전문팀 창설 멤버다. 그는 “입사한 다음해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며 “1997년 당시

공공조달 분야에서 낙찰 순서와 관련한 분쟁이 급격히 늘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법리 개발 등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며 처음부터 건설부동산 분야와 깊은 인연을 맺다 보니 25년을 하게 됐다”면서 “건설부동산 분야는 모든 법리가 망라된 종합예술”이라며 미소 지었다.

오 변호사는 최근 건설부동산팀 시니어 변호사들과 지난 20여 년간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발간하는 등 법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11개 테마로 쟁점별 실무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풀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구분무 회장 2주기 사내 영상으로 추모

LG그룹 임직원들이 20일 고(故) 구분무(사진) 회장의 2주기를 맞아 사내인트라넷 영상을 보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LG는 회사 차원의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 구분무 회장의 경영활동이 담긴 영상물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했다. 이는 생전에 과한 의전과 복잡한 격식을 멀리하고 소탈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온라인으로 차분하고 간소하게 추모하는 차원이다.

3분 분량의 추모영상은 1995년 회장 취임 이후 LG 핵심 신념인 ‘고객 가치’ 경영을 강조하던 모습과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던 모습 등이 담겼다. 또 전자·화학·통신서비스 핵심 사업군 구축, 국내 최초 지주회사체제 전환, ‘LG Way’ 선포 등 100년을 넘어 영속하는 LG를 만들기 위한 고인의 리더십을 조명했다. 특성과 집념으로 세계 유일의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자동차 전지를 글로벌 일등사업으로 일군 과정도 담겼다. 송영록 기자 syr@



## “누가 돌아왔는지 봐!”

손흥민 복귀 환영한 토트넘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의 복귀를 열렬히 환영했다.

토트넘 홋스퍼는 19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누가 돌아왔는지 봐!(Look who’s back!)”라는 글과 함께 손흥민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손흥민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일한 사진을 올리며 팀 복귀에 합류한 사실을 전했다. 손흥민의 이 게시글에는 팀 동료인 에릭 라멜라와 과거 소속팀 동료였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케빈 비머 등이 댓글을 달며 손흥민을 반겼다.

앞서 손흥민은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해병대 9여단에 입소해 3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16일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자가격리 조치도 받지 않고 곧바로 팀에 합류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가격리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내렸고, 이같은 지침에 따라 손흥민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필요 없었다.

한편, 손흥민이 활약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는 아직 정확한 일정을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시즌 재개를 목표로 팀 훈련이 허용되고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현대글로벌비스, 봉사활동도 ‘비대면’으로

홀몸 어르신 300가구에 직원들이 만든 컬러링북·꽃 전달

현대글로벌비스가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 어르신께 후원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대면 재택봉사 형태로 진행됐다. <사진>

현대글로벌비스 봉사 직원들은 홀몸 어르신 300가구를 위한 ‘컬러링 북’을 각 가정에서 만들어 사업장(서울 본사·울산·평

택) 인근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전달했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에 색을 채우는 컬러링 북은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심리방역 필요성이 커진 만큼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컬러링 북 제작을 결정했다. 컬러링 북과 함께 꽃 화분(카네이



션)을 전달해 코로나19로 판매량이 감소한 화훼농가를 돕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간편식(컵밥), 김 등으로 꾸러진 식료품 키트도 사회복지사를 통해 전달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 52개 팀에 1억 후원



에쓰오일은 20일 ‘청년 푸드트럭 유튜브 전달식’을 열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오른쪽 네 번째가 안중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에쓰오일(S-OIL·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20일 ‘청년 푸드트럭 유튜브 전달식’을 열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쓰오일은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수도권 27개 팀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25개 팀 등 총 52개 팀을 선발했다. 각 팀에게는 15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중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은 “올해 코

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모두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라며 에쓰오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2018년부터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푸드트럭 유튜브 후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스포츠 유망주 장학사업 신설



메르세데스-벤츠사회공헌위원회(의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사진 오른쪽)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함께 국내 취학 계층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 유망주들이 스포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사업 ‘기브 앤 드림’은 스포츠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 사회공헌활동 ‘메르세데스-벤츠 기브(Mercedes-Benz GIVE)’의 일환이다. 올해 ‘기브 앤 드림’을 통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모금액 중 1억5000여만 원을 총 5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서장우 前 국립수산과학원장

올해 7월 말 개관하는 국립해양과학관에 서장우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자로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서장우(57)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관장은 1962년생으로 경남고와 부경대 수산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경대 어류 질병학 석사, 전남대에서 수산과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수부에서 수산정책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췄다. 특히 수산과학원장 재직 시절 산하 수산과학관의 전 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책임자라는 평가다.

곽도훈 기자 soqood@

## 게시판

### 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 의장에 염재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신임 의장에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전 고려대 총장)를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의는 과거부가 ICT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열리고 있다.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상임이사 △부사장·수자원관리 이사 이상엽 △기획전략 이사 김종필 △기반조성 이사 김병수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 강경학 △특정직 △인재개발원장 한기진 △농어촌지원 개발원장 조석호

◆교보증권 △경영기획본부장 안조영

◆KBS △제작1본부 협력제작국장 이재현 △ 제작기획1부장 이내규 △ 시사교양1국 CP 윤준경 △ 시사교양2국

CP 홍진표 △ 협력제작국 협력제작1부장 양홍선 △기술본부 기술관리국 기술운영부장 박철배 △ 장비관리부장 고문안 △기술본부 방송네트워크국 네트워크운영부장 손연석 △ 화성송신소장 한정석 △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 TV기술국 총감독 하태구 △ 박창준 △ 이덕재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 보도기술국 총감독 김병수 △ 중계기술국 총감독 최태일 △ 라디오기술국 총감독 김남희 △기술본부 방송네트워크국 김재송신소장 강경호

◆하프포스트코리아 △부사장 송우달

## 부음

▲송정학 씨 별세, 이찬홍(신한카드 경영지원그룹장) 씨 부친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22일 오전 11시, 02-3010-2230

▲안승범 씨 별세, 안성근(롯데제과 홍보팀 과장) 씨 부친상 =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5호실, 발인 22일, 02-2227-7500

▲류길웅 씨 별세, 류정민(아시아경제 정치부 차장)·정애·정란 씨 부친상 = 19

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31-900-0444

▲박주야 씨 별세, 천병혁(연남뉴스 부국장대우) 씨 모친상, 류한열(교육사령부 훈련계획장교) 씨 장모상 = 19일,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2-950-1492

▲권종중 씨 별세, 권성석(신한섬유 대표이사)·성락(김앤장 변리사)·성구(코스콤 NextPB추진TF부 팀장) 씨 부친상 = 19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02-860-3500

### ‘올해의 이민자’에 수산나메리 여사

60년간 대구·경북지역 발전과 봉사에 힘써온 영국인 이민자 수산나메리(83) 여사가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인의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이민자상’ 표창을 받았다. 1959년 23세의 나이로 한국에 온 수산나 여사는 대구 효성여자대학교 영어 교수와 대구가톨릭여자기술원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 교육과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자본시장 속으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디스플레이 역사가 말해주듯 장점이 명확하다면, 그다음은 기술 최적화와 수율, 원가의 싸움이다. 한국의 LED, 디스플레이, TV 산업은 중국 업체들과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일 것이다. LED가 마이크로를 거쳐 나노 크기까지 작아질수록 기술적 장벽이 높아지면서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람의 눈은 간사하다. 화질이 좋고, 화면이 큰 TV에 익숙해지면 역진(逆進)하려 하지 않는다. 거실 크기가 동일해도 갈수록 대화면·고화질 TV를 찾는 이유다. 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동력이다.

현재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LCD(액정표시장치) 영역을 잠식하며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로 자리 잡고 있다. OLED는 구조적으로 BLU(Back Light Unit)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벽처럼 얇으면서 패널에서 직접 사운드가 나오도록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유기물 소재이기 때문에 번인 현상과 수명 문제가 태생적으로 따라다닌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마이크로LED, QD-OLED, QNED가 결합할 것이다.

이 중에서 마이크로LED가 빠른 흐름을 타고 있다. 마이크로LED는 말 그대로 10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소형 LED이다. 마이크로LED가 직접 레드, 그린, 블루의 세부 화소로 쓰인다. 기존 LCD TV는 BLU로서 50개 미만의 LED가 탑재되지만, 마이크로LED TV는 4K 해상도 기준으로 무려 2400만 개가 탑재된다. 8K 해상도를 구현하려면 1억 개가 필요하다.

스케일이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의미다. 당연한 의문이 생길 텐데, 원가가 매우 비쌀 수밖에 없고, 2400만 개의 LED를 기판에 옮겨 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일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제작한 145인치 마이크로LED TV '더 월(The Wall)'의 판가는 40만 달러로 거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LED의 장점이 뚜렷하다. 휘도, 색 영역, 색재현성, 응답속도, 전력효율, 신뢰도 등 디스플레이로서 갖춰야 할 모든 성능이 뛰어나다. LED가 무기재료이기 때문에 열과 습도에서 안정적이고, OLED의 단점인 수명과 내구성을 극복할 수 있다.

다바이스별로 보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는 배터리가 쉽게 방전된다는 것이 큰 불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LED의 저전력 기술이 돋보일 것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는 해상도가 낮아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LED의 고해상도 및 야외 시인성이 돋보일 것이다. TV는 OLED가 접근하기 어려운 초대형 시장에서 잠재력이 클 것이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표적으로 LED를 기판에 옮기는 전사(Transfer) 기술이다. 예컨대 1초에 한 번씩 1000개의 LED를 옮긴다고 가정하면, 4K TV 1대당 6시간 4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난센스처럼 들린다. 또 다른 문제로 결합 이슈도 중요하다. 칩 제조, 전사, 기타 공정이 이상적이어서 전체 공정의 수율이 99.99%에 도달했다고 가정해도 4K TV 1대당 2488개의 불량 칩이 발생한다. 이것도 난센스처럼 들린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다. 대량, 고속 전사를 위한 픽앤드플레이스(Pick-and-Place)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다.

마이크로LED는 B2B 상업용 시장에서 먼저 개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덜한 초대형 공공 디스플레이, 디지털 월,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서는 마이크로LED의 성능과 기능이 돋보일 것이다. 소비자 제품 중에서는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빠르게 침투할 것이다.

다음 기술로서 QD-OLED와 QNED의 차이는 발광원을 블루 OLED로 하느냐 초미세 블루 LED로 하느냐에 있다. 역시

LED가 무기물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번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QNED는 마이크로보다 더욱 작은 나노 LED를 채택하고, 전사 방식이 아니라 잉크젯 기술로 인쇄하는 것이 특징이다. 페인트 칠에 비유할 수 있다. 양산성이 검증된다면 값비싼 진공 증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LED 장착 수량이 대폭 감소하며, 원가가 저렴한 블루 LED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QNED가 성공하려면 나노LED의 소재 성분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고, 잉크젯 노즐의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방향을 정리해 봤다. 디스플레이 역사가 말해주듯 장점이 명확하다면, 그다음은 기술 최적화와 수율, 원가의 싸움이다. 한국의 LED, 디스플레이, TV 산업은 중국 업체들과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일 것이다. LED가 마이크로를 거쳐 나노 크기까지 작아질수록 기술적 장벽이 높아지면서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작음의 미학'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세계적 도시 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도 최근 발표자료에서 도시부동산에 건강, 복지, 그린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과 인간의 지속가능성은 소중하다. 뉴욕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 조난단 로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든 아파트 건물에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인간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직원과 입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상호 접속의 장려도 한 예다.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도 중요하다. 조난단 로즈의 아파트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싸다.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가격정책이다. 수익률은 낮지만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이 없다. 입주율은 100%고 대가자도

도시부동산의 뉴노멀,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많다. 또한 투자 시 위험관리 원칙 준수와 유동성 확보가 중시된다.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매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는 보험 회사, 연금, 국부펀드 등의 장기채권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기관투자 속성상 여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위험관리 원칙을 충실히 준수한다. 특히 유동성 확보로 원활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관리를 강조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운동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건강과 복지, 사회적 평등, 공동체 참여 등이 중시된다. 특히 저소득층 일수록 코로나에 더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가 시급하다. 이에 부동산 산업도 지역사회에서 이에 동참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건축환경에 융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그린

제네레이션은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다. 고객 회사의 건물에 태양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등 그린 지속가능성을 반영한다. 유지보수 비용을 줄여, 현금흐름과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다.

건물 내 공기 품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치료법과 백신이 아직 없기에, 사람들은 체계적 기술을 통해 빌딩 내 공기 품질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향후 몇 달간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장으로 복귀도 해야 하기에 건강을 위한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대형 건물들은 국제적 빌딩관리 기준(WELL Building Standard)을 준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인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를 적용하는 투자가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ESG 운동으로 부동산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글로벌 표준, 검증된 데이터와 수단을 투자가관에 제공한다.

유럽연합(EU)은 효율적 에너지 자원, 지속가능성 농업, 주택, 및 교통 등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부흥 전략이기도 하다.

일하는 장소에서 공간의 탄력적 활용도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을 여러 팀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현상도 생겼다. 밀도 높은 배치를 줄이고 햇빛, 외부와 접하는 공간도 늘린다. 재택근무 효과가 인정받고 있으며, 반대로 재택근무에서 빌딩근무로의 회귀도 진행되고 있다. 빌딩 내의 건강 회복력, 엔터테인먼트 공간, 상호간 경험 교류는 전형적 도시화 트렌드이기도 하다.

코로나 극복과 그 이후를 위해서라도, 기존 시스템에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융합하면 그 효과가 높아진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면 더 큰 효과가 난다. 도시부동산에 많은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산해야 할 시기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알렉산더 포프 명언  
"질서는 하늘의 으뜸가는 법률이다."  
영국의 시인·비평가. 조숙한 천재성을 보인 그는 5세에 문장을 짓고 12세에는 이미 희곡을 썼다. 척추결핵으로 불구의 몸이었던 그의 대표작은 풍자시 '우인열전(愚人列傳)' 철학시(哲學詩) '인간론'. 오늘날 그의 생일. 1688-1744.

☆ 고사성어 /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옥(金玉)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 출전은 한(漢)나라 양웅(揚雄)이 신(新)나라를 세운 왕망(王莽)에게 아첨의 글로 바친 극진미신(劇秦美新). "은주시대에 존재하였던 잃어버린 업(業)과 요순시대에 빛나다가 전승이 끊어진 풍속을 이었도다. 아름다운 법도(六律)와 도량형(度量衡), 귀중한 법령 신령스런 점괘, 선왕(先王)의 전적(典籍)들이 모두 피어나도다. 환히 비쳐 두루 미치지 않는 바가 없도다 [懿律嘉量 金科玉條 神卦靈兆 古文筆發 炳煥無疆]."

☆ 시사상식 / 보복소비(報復消費)  
질병이나 재난 등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소비가 전염병 확산이 누그러짐에 따라 소비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강제적 소비 중단이 소비 폭발로 연결돼 실물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소비자들이 갑자기 매장에 몰리면서 2차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유머 / 성형외과 의사의 기지  
아내가 오십이 넘자 젊어지고 싶다며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매일 남편을 졸랐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성형외과를 찾아가다. 의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수술 견적을 계산하고는 아내를 잠시 진료실에서 내보냈다. 불안해진 남편이 "견적이 많이 나왔나요?" 라고 묻자 의사가 말했다. "이왕이면 수술비를 위자료로 쓰시고 새 장가를 드시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13조 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쓸 수 없는 만큼 외식업 자영업자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의 기대가 크다.

편의점 본사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육류와 잡화 판매가 몇 배씩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내왔다. 한 개 팔리던 상품이 두 개 팔리면 매출이 두 배 오른 셈이니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편의점에서 이런 것도 팔고 있으니 재난지원금을 써달라는 마케팅이기도 하다.

편의점 본사들은 '슈퍼 갑'인 담배회사 눈치를 보며 매출 언급을 자제하지만, 현장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무엇보다 담배 판매가 가장 늘었다는 게 한목소리다.

서울 영등포구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

기사수첩

남주현 유통바이오부/jooh@



재난지원금으로 담배 매출 늘었다는데

원은 재난지원금으로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손님 질문이 4월에 하루 평균 4~5번에서 이달 들어 8~10번으로 늘었다고 했다. 경기도 주택가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하는 한 점주 역시 "이달 들어 보루 단위 담배 구매고객이 늘어 평소 30%였던 담배 매출 비중이 50%까지 오르는 날이 잦아졌다"고

했다. 담배 판매 증가는 소상공인 돕기라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는 걸까? 담배는 통상 편의점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미끼 상품'이지만 마진율이 적어 점주 입장에서 효자상품은 아니다. 과자나 라면, 주류 등의 마진율은 20~30%대지만 담배 마진은

9% 내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누구 몫으로 돌아갈까? 담배 1갑 4500원 기준으로 점주 몫은 약 400원인데 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3300여 원. 점주 몫보다 8배가량 높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4월부터 편의점 담배 매출이 늘자 학계와 현장에서는 담배를 재난지원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장 기간이 긴 기호상품인 담배 판매 증가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에 대답은 없다. 생색만 내고 다시 세금으로 거두길 바라 걸까. 재정 부담에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는 정부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건 우연일까.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전국시대 말기 대상인, 여불위(呂不韋)

# “기화(奇貨)가져, 임금이 될 사람을 사두라”

〈奇貨可居〉

중국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아무래도 진시황이 첫손가락으로 꼽히게 된다. 천년에 걸친 천하대만을 종식시키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뤘던 진시황의 강력한 추진력과 통일 이후 독재자의 모습, 그리고 어이없이 급속했던 붕괴가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중국 첫 통일제국, 진시황 '출생의 비밀'

그런데 진시황은 사실 그 출생부터 극적이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진시황이 바로 여불위(呂不韋)의 사생아라는 점을 확실하면서 이 사실을 사기 열전 '여불위전'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여불위는 전국시대 한(韓)나라 대도시인 양척(陽城)의 대상인이었다.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값이 싼 때 물건을 사놓았다가 시기를 보아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견문이 넓었으며 특히 모든 일에 대한 감각(鑑識眼)이 비상하였다.

진나라는 소왕 40년에 태자가 죽고 2년 후에 차남인 안국군(安國君)이 태자가 되었다. 안국군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총애를 받고 있었던 화양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 20여 명의 아들 가운데 자초(子楚)라는 왕자가 있었다. 자초의 생모인 하희(夏姬)는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조나라에 인질로 보내졌다.

사업자 조나라 수도 한단에 간 여불위는 그곳에서 인질로 보내어진 자초를 만나게 되었다. 여불위는 자초를 보는 순간, '이것은 기화(奇貨)이다. 옛말에도 '기화(奇貨)가져(奇貨可居)'라고 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였다. '기화'란 진귀한 상품 즉, 뜻하지 않게 찾아낸 물건이고, 그리하여 '기화(奇貨)가져'란 보존하였다가 비싸지기를 기다려 팔 수 있는 진귀한 물건이라는 뜻이다.

## “사람에 투자가 가장 큰 이익 거둔다”

자초를 만난 뒤 여불위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농사를 지으면 몇 배의 이익이 남습니까?” 아버지는 “글쎄, 열 배쯤 남을까”라고 대답했다. 여불위가 또 “보물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몇 배나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아버지는 “백 배는 되겠지”라 대답하였다. 여불위가 다시 “그러면 임금이 될 사람을 사두면 이익이 몇 배가 될까요?”라 묻자 아버지는 “그야 계산할 수 없을 정도겠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불위가 말했다. “농사를 지어서 얻는 이익이란 그저 추위에 떨지 않고 배를 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라의 대권을 움켜질 왕을 키우게 된다면 그 혜택은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지금 조나라에는 진나라의 왕자가 인질로 와 있습니

다. 저는 이 기회를 사놓겠습니다.” 여불위는 곧장 자초를 다시 찾아갔다. 자초는 매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여불위가 큰절을 하면서 자초에게 말했다. “제가 이제부터 왕자님의 대문을 크게 헤드리겠습니다.” 자초는 힘없이 말했다. “먼저 당신의 대문을 크게 만들고 나서 나의 대문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 승상에 올라 낙양 10만호를 식읍으로

여불위는 “공자께서는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의 대문은 공자의 대문이 커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 진나라 왕은 연세가 많고 공자의 아버지 안국군은 태자로 계십니다. 안국군은 화양부인을 총애하고 있는데 그 부인에게에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계를 정하는 데는 화



여불위가 식객 3000명에게 저술을 맡겨 편찬했다는 '여씨춘추(呂氏春秋)'. 여불위는 이 책을 진의 수도 함양 저장거리에 전시해 놓고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 때문에 '일자천금(一字千金)'이라는 고사가 생겼다.

양부인의 힘이 크게 작용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공자는 20여 명의 형제 중 중간쯤 태어나신 분으로 아버님의 관심도 별로 없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인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안국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후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옆에 있는 큰 형님이나 다른 형제분들에 비해 공자께서 훨씬 불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듣고 있던 자초가 “어떻게 좋은 방도가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여불위는 “공자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으며, 따라서 아버님에 대한 선물은 고사하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교제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천금의 전 재산을 던져서라도 안국군과 화양부인에게 당신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공작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불위는 5백금을 자초에게 교제비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5백금으로는 조나라의 진귀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훗날 한나라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재산이 열 금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여불위의 부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때부터 여불위는 천금의 위력에 더해

그의 능란한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자초의 명성과 위상을 높였다.

여불위는 미모의 무희(舞姬)들을 집에 들여 놓고 있었다. 어느 날 자초가 여불위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무희를 보는 순간 반해버렸다. 자초는 그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무희는 이미 여불위의 애첩이 되어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초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까지 전 재산을 던져 투자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자초에게 재가해 갔다. 후에 그녀는 자초와의 사이에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정(政)이며, 바로 뒷날 '호랑(虎狼)'이라 칭해졌던 진시황이었다.

몇 년이 지나 진나라 왕이 죽고 안국군이 즉위하자 자초는 태자가 되었다. 안국군은 즉위 1년 만에 죽고 자초가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장양왕이다. 자초는 역시 여불위가 지목한 대로 '기화(奇貨)'였던 것이다. 여불위는 승상에 임명되었고 낙양 지역의 10만 호를 식읍으로 삼았다.

## “치욕스럽게 죽으니”...필연적 비극

장양왕 역시 재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나 드디어 태자 영정(嬴政)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바로 진시황이다. 여불위는 최고 직위인 상국(相國)으로 올랐으며, 또한 중부(仲父, 아버지와 닮았는 사람이란 뜻)로 칭해지며 집안에 무려 만 명의 노비를 부리는 등 일세를 호령하였다.

역시 호사다마였다. 여불위는 옛 연인이자 진시황의 어머니인 태후와 밀회를 즐겼다. 특별하게 의심이 많았던 독재자, 진시황은 여불위에게 진서를 보냈다. '귀공께서는 무슨 공적이 있어 10만 호의 영지를 받았는가? 또 진나라와 어떤 혈연관계가 있어 중부로 행세하고 있는가?'

여불위는 '이러다가 끝내 주살되고 말 것이다. 치욕스럽게 죽느니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감식안'

대상인(大商人) 여불위는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감식안'이 있었다. 그는 그러한 투자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냈고, 이 투자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하여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즉, 자신의 투자 대상이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정확한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다. 당시 투자 대상의 아버지인 태자와 태자가 총애하는 화양부인이 아들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던져 결국 자신의 투자 대상이 권좌를 거머쥘 수 있게 하였다.

정확한 투자 대상의 선택과 성공에 이르는 정확한 루트의 개발, 이것이 여불위의 성공 요인이었다. 다만 너무 잔인한 아들, 진시황을 둔 것이 그의 필연적인 비극이었다.

## 시설

### 최악 역성장 현실화, 경제안정 위한 속도전 절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최악의 역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KDI는 3개 시나리오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례적이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환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백신 또는 치료법이 개발될 경우 1.1%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실현이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고려한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6%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0.2%든 -1.6%이든,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28일 수정경제전망치를 내놓은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2%로 예상한 바 있다.

KDI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재정을 주문했다. 기준금리도 이른 시기에 사실상 제로(0) 수준까지 내리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의 수단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기업 파산이나 실업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기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KDI는 그러면서 1·2차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재정적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정수입 보안을 위한 증세(增稅)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3차 추경의 경우 한시적·지역적 지출 중심으로 편성하고, 복지 등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는 지출의 증가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갈수록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에서 55만개 +α의 직접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8조 원의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우선 10조 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비우량등급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매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관건은 대책 실행의 속도다. 특히 기업의 파산이나 대량실업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극 방어해야 한다. 이번 대책도 상당 부분 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후이나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재원 대부분이 3차 추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21대 국회가 출범하지만 원 구성 등 일정을 감안하면 결국 늦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더 발벗고 나서야 한다.

## 한 킷



### 여름, 시작!

햇볕이 풍부해지고 만물이 성장한다는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小滿)'인 20일 맑은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여의도 부근 한강에서 시민들이 수상스키를 타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 SAMSUNG



우리는 망원동 베를리너  
우리는 요리만큼 플레이팅에 집중한다  
우리에겐 주방을 화보로 만들어준 비스포크가 있다

## 모두에겐 자신만의 비스포크가 있다

16개의 컬러 x 11개의 타입 = 원하는 라이프에 모두 맞춤  
당신만의 비스포크는 무엇인가요?



Satin Beige  
Glam Olive  
Glam Deepgreen  
4도어 + 1도어

**E O G O 4 1**

지금 삼성닷컴에서  
#MYBESPOKECODE를 만들어 보세요

### BESPOKE